

II.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1. 청·일군의 조선 출병과 농민군의 전주성 철수
2. 청일전쟁의 발발과 농민군의 정세인식
3. 평양전투와 농민군의 동향
4. 일본군의 청국 진입과 농민군의 재봉기

II.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청일전쟁과 농민전쟁은 동아시아 3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획을 긋는 커다란 사건으로 양자간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본 주제와 관련해 볼 때 대부분의 연구는 ‘청일전쟁’ 그 자체에 한정하여 청국과 일본간의 전투과정을 서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거나, 일본자본주의 발달사 또는 국제정치학의 측면에서 열강을 중심으로 한 세력관계, 동맹관계 등에 대한 이해에 치중되어 왔다. 따라서 이 전쟁에 대한 각 단계별 농민군의 정세인식과 동향은 거의 도외시되어 있다.

그런데 전주화약 이후 제2차 농민전쟁에 이르기까지 농민군의 활동은 청일전쟁의 전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청일전쟁의 진행과정은 농민군이 전쟁수행을 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 다른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코자 일본이 도발한 청일전쟁은 제1차 농민전쟁 이후 봉건제의 타파와 중앙권세가의 축출 등 개항 이후 고양되어 오던 농민적 의지를 실천하는 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었다. 이를 해결하는 데 농민군들은 더욱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¹⁾ 그것은 결국 농민전쟁이 반봉건 전쟁에서 반봉건·반침략 전쟁으로 전환하게 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반면 농민군의 활동 또한 조선출병, 경복궁점령 이후 일본의 대청전쟁 수행 및 조선지배정책을 추진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이었다.

이 시기 조선지배권을 둘러싸고 전개된 청·일군의 출병은 조선인 모두에게 국가적 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즈음 농민군들은 청·일의 군사적 동

1) 청일전쟁 전과정과 관련한 농민군의 정세인식과 단계별 동향 및 집강소 시기 청일군 개입이 농민군의 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가 참고된다.
조재곤, <청일전쟁에 대한 농민군의 인식과 대응> (《1894년 농민전쟁연구》 4, 역사비평사, 1995).

裴亢燮, <執綱所 時期 東學農民軍의 활동양상에 대한 一考察－外勢의 介入이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歷史學報》 153, 1997).

향과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2차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다. 특히 평양전투 이후 일본의 ‘보호국화’ 정책에 대하여 대일 항전의 전면화로 전화하였다. 그러나 정세인식과 향후 방략 및 행보에 있어 농민군의 각 세력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은 아니었으며,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일본은 농민군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고자 하였으며, 일련의 청일전쟁 승리와과정에서 대농민군 정책은 토벌에서 살륙·초토·박멸로 변화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농민군의 활동 또한 이전의 국지적 차원에서 탈피하여 전면전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었다.

1. 청·일군의 조선 출병과 농민군의 전주성 철수

1894년 시작된 청일전쟁은 이른바 ‘청·일 각축기’의 최종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킨 계기는 조선의 정치적·군사적 지배와 시장의 장악에 있었다. 따라서 일본은 자신들의 ‘이익선’ 확보를 위해 군비확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²⁾ 일본은 1876년 함포의 위력을 매개로 조선을 강제 개국시켰고, 1880년대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에 개입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 하였다. 그러나 끝내 청국에게서 그 우위권을 빼앗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청국과의 전쟁을 겨냥하면서 조선 지배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아래 1884년부터 1894년까지 10여 년간 계속 軍備와 軍費를 증강하면서 그 돌파구를 모색하였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청국의 ‘속망’인 조선을 ‘독립’시킨다는 명분을 제시하면서 군대 파견을 통한 조선 침략의 기회를 넘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1894년의 농민전쟁 발발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침략 의

2) 中塚明, 《近代日本と朝鮮》(三省堂, 1977), 54~55쪽.

藤原彰・今井清一・大江志乃夫 編, 《近代日本史の基礎知識》(有斐閣, 1983), 139~140쪽.

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절호의 ‘外事’ 즉, 기회로 파악하였고 그것은 출병 기회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한 나라의 군대를 다른 나라에 주둔시켜 그 나라를 자신들의 이해관계 아래 두는 것은 설령 그들의 힘이 강하더라도 대내외적으로 어느 정도의 명분이 필요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조선 침략의 결정적 시기를 모색하고 있던 중에 전라도 농민군의 전주점령 보고를 듣고 이를 더없이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출병을 결정하게 된다.

일본내의 극우세력들과 언론은 이미 그해 1월부터 조선정책에 우유부단하고 ‘늑고 게으른’ 오오토리 케이스케(大鳥圭介)공사를 체임시키고 군대를 파견하자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었으며,³⁾ 4월경부터 일본정부는 조선출병을 대비하여 비밀리에 郵船會社 등에 운수 및 군 수요물품의 징발을 지시하고 있었다. 이 무렵 일본은 군사파견을 기정사실화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일본政局當路者 중 조선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던 외무대신 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도 “출병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것을 면할 수 없다”⁴⁾고 말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청국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전쟁준비는 아닌 듯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국정부는 처음부터 일본정국의 형세를 오관하고 있었다. 청국의 실력자 袁世凱 등은 일본은 항상 정부와 의회의 알력으로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는 등의 대결단을 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다.⁵⁾ 조선의 농민전쟁에 대해서도 일본과는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청국은 제1차 농민전쟁의 핵심을 反封建으로 이해하고 농민군이 제기하는 외국인 구축은 명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일본은 농민군의 핵심주제는 反倭洋으로 평가하고, 이에 조선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⁶⁾ 당시 청국정부는 일본보다 자국의 힘이 우세하다고 단정하고 양국간의 전쟁발발가능성을 인식치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국은 즉시 철수를 하지 않고 지연하여 일본의 출병 기회를 제공하였다.

3) 《二六新報》, 명치 27년 2월 25일.

4) 陸奥宗光, 《蹇蹇錄》(岩波書店, 1940), 14~16쪽.

5) 《蹇蹇錄》, 19쪽.

6) 《清季中日韓關係史料》6(臺北: 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 갑오 5월 17일, 3381쪽.

농민전쟁과 그로 인한 청군출병은 일본정국의 국면전환 계기로 작용하여 일본정부와 군부는 의회해산과 출병의 구실을 마련할 수 있었다. 즉 〈天津條約〉을 근거로 드디어 4월 29일 일본 천황은 조선과병 결정을 재가하는데, 이는 민씨정권의 청국군 개입요청보다 하루 빠른 것이다.⁷⁾ 결국 일본의 침략 의도는 이미 짜여져 있었으며 향후 계획된 수순을 밟아가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점은 일본 국내 여론의 동향이다. 자국 정부의 의지를 일찍부터 간파한 일본언론은 정부의 과단성을 촉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초보적인 전쟁준비 절차와 방법론을 제시하고 군사를 동원한 개입을 권고하는 등 정부를 부추기고 있었다. 조선정부의 청국군 개입 요청 일인 4월 30일 보다 4일 전인 같은 달 26일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자신이 깊게 관여하고 있던 《時事新報》에 〈내란은 일본에 있어 중대하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청국과의 전쟁 필요성과, 그 일환으로 조선의 농민군 진압에 일본정부가 앞장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농민군의 ‘소동’은 일본의 권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따라서 청국병사가 출동하면 자신들도 출동하여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후쿠자와는 그 방법으로 군함 외 별도의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할 것, 兵隊를 파견할 것 등을 제안하고, 전쟁준비를 암시하는 표현인 “臨機의 工風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⁸⁾ 특히 결론 부분에 “당국자의 주의를 요하는 바”라 하여 처리에 신중성을 기할 것까지 역설하였다. 《萬朝報》 역시 조선문제 ‘해결’과 대청전쟁 수행의 또 다른 명분으로 明治 10년 西南의 亂 이래 ‘20여 년간에 걸친 일본의 태평’을 들고 이는 필연적으로 전쟁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⁹⁾ 이러한 여론과 더불어 전쟁준비의 본격화가 이루어진 이즈음 일본정부는 5월 4일 〈陸海軍省令〉을 발해 보도관제를 선포하였다.¹⁰⁾ 이날 일본내의 대외강경과는 출병응원을 선언하고,¹¹⁾ 5월 7일 자유당은 시찰원을 조선에 파견하여 농민전쟁

7) 朴宗根 著, 朴英宰 譯, 《清日戰爭과 朝鮮: 外侵과 抵抗》(一潮閣, 1992), 16쪽.

8) 《時事新報》, 명치 27년 5월 30일.

9) 《萬朝報》, 명치 27년 6월 13일.

10) 《國民新報》, 명치 27년 6월 9일.

11) 《郵便報知新聞》, 명치 27년 12월 30일. 〈명치 27년 회고의 일록〉.

의 사정을 조사 보고케 하였다.¹²⁾ 5월 14일에 이르면 국권주의자들은 스스로 민병대를 구성하여 민간차원에 이르기까지 농민전쟁에 적극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¹³⁾ 이렇듯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청일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종일관 제3국의 개입을 우려하고 전쟁을 청일 양국간으로 한정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¹⁴⁾ 제야에서도 여타국의 개입을 강력 대응하겠다고 결의하였다.¹⁵⁾

반면 청국은 일본 조야의 조선침략과 대청정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시 일본을 압도했던 사실을 회상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만약 전쟁이 벌어지는 형국에 도달하더라도 당연히 일본에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안이한 인식은 외국관리는 물론 상인과 농민군을 포함한 우리 나라 대다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였다. 이들 역시 양국이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당연히 청국이, 그것도 최초의 1·2차전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었다.¹⁶⁾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국정부는 다가올지도 모를 전쟁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그와 같은 사실은 이홍장이 “우리의 군대가 조선에 파병되면 곧 일본에 알려야 되니 우리는 일본과 무력적인 대결도 불사하게 될 결정적인 시기에 봉착할 것이다. 이때를 위하여 우리는 만반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원세개에게 일을 보아가며 살피도록 해야 한다”고 훈령한 데서 알 수 있다.¹⁷⁾

제1차 농민전쟁을 구실로 조선을 둘러싼 청·일 양국이 이와 같은 조선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조선은 내부적으로 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었다. 특히 전라도 전역에서 활동하던 농민군은 드디어 4월 27일 전주를 점령하였다. 농민군에 의한 전주점령 직후부터 정부의 借兵문제 논의는 본격화되었다. 농민군을 ‘미친 벌떼와 궁한 개’¹⁸⁾로 비유한 선험당

12) 《萬朝報》, 명치 27년 6월 10일.

13) 《大阪毎日新聞》, 명치 27년 6월 17일.

14) 《蹇蹇錄》, 17쪽.

15) 《萬朝報》, 명치 27년 6월 13일.

16) 《蹇蹇錄》, 32쪽.

17)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13-5(北京:文海出版社, 1963), 北洋大臣來電.

상 閔泳駿은 무기력한 중앙군과 지방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에 대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집권 민씨세력은 초토사 홍계훈의 청에 따라 청국의 ‘天兵’의 힘을 빌어 이들을 토벌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밀리에 이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민영준의 淸軍借兵論은 조정에서도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 그 이유는 ① 外兵에 의해 ‘몇만의 생명(농민군)이 절멸’당할 것이며, ② 외병의 통과 지역 등에서는 막대한 폐해가 생겨 인심을 동요시킬 것이기 때문이며, ③ 일본과 구미열강이 그들의 공관이나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군대를 파견할 위험성도 있었기 때문이었다.¹⁹⁾ 농민들의 봉기원인을 직시하고 있던 영돈령부사 金炳始는 “수렴정치에 견디지 못하여 백성이 起鬨한 것을, 바로 동학도에 그 책임을 돌려서 수천 명을 살상한 것도 참지 못하겠거니와, 여기서 淸兵을 청원한 것은 또 하나의 실책이다. 타국의 병을 빌려서 우리 백성을 살해한다는 것이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인가”²⁰⁾라 하면서 민영준 등의 請兵을 힐책하였다. 당시 국제정세에 밝은 洪鍾宇도 5월 9일 민영준과의 대화에서 청군출병은 일본측에게 출병의 구실을 주고 결과적으로 민영준은 권좌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충고를 하고 있었다.²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국군을 부르는 것은 당시 집권 권력층의 입장에서는 부득이 취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다. 정부는 원세개를 통해 군사파견 요청서를 전달하였고, 청국은 군함을 곧바로 조선에 파견하였다. 이 청에 따라 5월 5일에는 聶士成이 지휘하는 청국군 1천 명이 충청도 아산만에 상륙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 역시 청국과 조선의 정국을 살피면서 5월 4일 청국측에 일본군의 조선출병을 통지하였고, 5월 6일 공사 오오토리는 일본군을 인천항에 상륙시켰다. 이날 본국에 있던 보병 제11연대 선발대도 우지나(宇品)港을 출발하였다.

18) 《駐韓日本公使館記錄》4(번역본, 국사편찬위원회, 1898), 1894년 6월 20일, 發第82號, 日兵 入京에 관한 韓國 朝廷 및 京城內의 상황 탐정보고, 131쪽.

19) 朴宗根, 앞의 책, 12쪽.

20) 《東學亂記錄》上, 〈甲午實記〉(국사편찬위원회, 1959), 14쪽.

21) 金正明 編, 《日韓外交資料集成》4, 日淸戰爭編(東京:巖南堂書店, 1965), 일청양국의 군대파견에 관한 탐정 보고의 건, 24쪽.

그런데 청일양국의 군사배치 목적은 각기 달랐다. 그것은 출병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농민군 진압과 종주권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던 청국은 농민군의 근거지와 근접지인 아산에 주둔하였다. 반면 인천과 왕궁이 있는 경성에 주둔한 일본군은 조선의 내전에 따른 영사관과 자국 신민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정권전복을 통한 대청 우위와 조선 지배에 목적이 있었다.

청·일군의 조선출병은 농민전쟁의 판도를 轉變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전주를 점령한 농민군은 양국 군사의 출병으로 심각한 문제가 도래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全瑛準 등 농민군 지도부는 이를 청일전쟁이라는 국제분쟁이 야기될 것을 깊이 우려하고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온 5월 8일 전주에서 정부측과 강화를 체결하였다. 곧바로 전주성을 철수한 농민군은 이후 전라도를 중심으로 각처에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5월 11일 전봉준 등은 순변사 李元會에게 〈全羅道儒生等原情〉을 제출, 14개조의 폐정개혁안을 제시하고,²²⁾ 이후 향촌내의 질서를 바로잡고 내부모순 해결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진행시켜 나갔다.

이렇듯 전주화약이 성립되게 된 배경에는 농민군측의 경우 청일전쟁과 관련하여 볼 때 크게 두 가지가 언급될 수 있겠다. 먼저 농민군은 예상되는 청국군의 진압을 크게 두려워하여 수만의 군사가 왔다는 소식에 전력의 열세를 고려하여 화해협정을 맺게 되었다. 두번째로 전봉준은 청·일 양국군의 출동으로 인한 국제분쟁과 그것으로 인해 초래될 조선의 국가적 위기를 막아보려고 깊이 고려하였다.²³⁾ 그러나 농민전쟁의 휴지기(전주화약후 집강소 시기)가 됨에 따라 조선에 주둔할 명분이 약화되자 곤혹스러워진 일본은 5월 17일 충청·전라도 지방에 시찰요원을 파견하여 농민군의 실상을 파악²⁴⁾하는 한편, 이른바 ‘내정개혁’을 빌미로 조선문제 개입명분을 찾기 위해 다시 전전긍긍하게 되었다. 이 보다 며칠 앞서 일본 대리공사 스기무라 후카시(杉

22) 金允植, 《續陰晴史》上(국사편찬위원회, 1960), 갑오 6월, 322~326쪽.

23) 鄭昌烈, 《甲午農民戰爭研究—全瑛準의 思想과 行動을 중심으로—》(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1), 160~161쪽.

24) 《統署日記》3(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고종 31년 5월 17일, 330쪽.

村濤)는 민씨정권을 타도하고 친일개화파 정권을 수립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²⁵⁾

이미 일본공사 오오토리는 청국군 출병에 우선하여 자국정부에 1천 명 규모의 군사를 조선에 파병시키자고 주장하면서, 청국군과 더불어 민란을 진압할 것과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자고 제안한 바 있었다.²⁶⁾ 그러나 5월 5일 일본군 조선파병 문제에 관한 스기무라와의 회견에서 외무독판 조병직은 농민전쟁으로 ① 약간의 소요는 있지만 서울은 안전하고 농민군도 조만간 진정될 것이니 일본병을 파견 주둔시킬 필요는 없다고 하여 과거 임오군란 시와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② 일본이 군사를 파견하면 각국이 모방하여 조선은 물론 동양 전체에 큰 해가 될 것이며, ③ 일본병이 서울에 들어오게 되면 인심이 흉흉해질 뿐더러 ‘의외의 패’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²⁷⁾고 하여 일본군의 파병을 사실상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주화약 성립 직후 ‘내정개혁’의 명분으로 대규모의 혼성여단을 조선에 진주시켰다.²⁸⁾ 이는 일본의 침략의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으로, 당시 오오토리공사도 다수의 호위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본국정부에 상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군사를 조선에 대거 상륙시켰다.

일본의 ‘내정개혁’ 제안에는 상당한 계산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첫째, 당면의 긴급과제였던 철병을 회피하고 주둔을 계속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함과, 둘째, ‘내정개혁’에 의해 청을 도발케 함으로써 開戰에 끌어넣고자 하였다. 당시 일본은 조선에 ‘내정개혁’을 권고하고 이로 인해 청·일 양국군의 전쟁을 촉진하게 된다면 오히려 다행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다.²⁹⁾ 셋째, ‘근대화’를 명분으로 미국과 영국의 지지를 얻는데, 이는 또한 구미의 상품시장이 되고, 넷째, 조선에서 일본의 정치·경제적 지배를 강화하는 데

25) 杉村濤, 《明治二十七・八年 在韓苦心錄》(1904), 12~13쪽.

26) 藤村道生, 〈日清戰爭〉(《岩波講座日本歴史》16-近代 3, 岩波書店, 1980), 15~16쪽.

27) 伊藤博文 編, 《秘書類纂 朝鮮交涉資料》中(비서류찬간행회, 1936), 명치 27년 6월 9일, 公使館護衛兵派遣ノ儀通知顛末, 372~373쪽.

28) 朴宗根, 앞의 책, 22쪽.

29) 《駐韓日本公使館記錄》3, 1894년 6월 15일, 동학란 변란시 한국군대 보호에 관한 일청교섭관계 1건, 133쪽.

목적이 있었다.³⁰⁾ 결국 이는 피상적 ‘개혁’을 빌미로 농민군의 의지를 희석화 내지 무력화하기 위한 기도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를 위한 공작으로 일본은 상황을 급박하게 전개시켜야 하고, 한편으로는 이를 왜곡시킬 필요가 있었다. 5월말~6월초의 어느 기간에 외무대신 무츠는 오오토리공사에 훈령하여 병사를 계속 주둔시키고 농민군 조사에 지연책을 쓸 것과, 농민군의 활동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 허위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우리 군대의 철수가 지연되는 이유로 삼기 위해 각하는 공공연한 방법을 써서 공사관의 직원이나 영사관의 직원을 폭동이 일고 있는 지방에 파견하여 실황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실황조사는 될 수 있는 대로 느리게 천천히 할 것이며, 그 보고서는 고의로라도 평화로운 상태와는 반대가 되도록 작성케 할 것을 절망한다. 만약 시찰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순사를 수행케 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조선정부가 평화와 질서가 회복되었다고 말하면서 우리 군대의 철수를 요구해 올 경우에는 제국정부와 각하가 만족할만한 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황조사차 특별히 파견한 관리의 보고를 기다려야 한다고 답변하여야 한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3, 1894년 6월 15일, 동학당 변란시 한국군대 보호에 관한 일청교섭관계 1건, 123쪽).

그것은 일본군의 철수를 지연시키는 한편 주둔 명분을 억지로라도 찾으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다. 일본이 청일전쟁을 도발한 이유는 정치·군사적 요인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본내의 전쟁 도발 여론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작용하고 있었다. 《大阪毎日新聞》은 6월 중순 <동학당 반란이 일한무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천항의 5월(양)중 무역 상황을 설명하고 ‘동학당의 요란’으로 인해 해초와 牛皮의 무역 수량 감소가 현저하다고 통계를 비교 분석하여 주장하였다.³¹⁾ 《萬朝報》도 ‘鷄林의 亂’이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① 商船이 결핍하여 정기항해를 중단하기까지 하고, ② 운임은 점차 등귀하고, ③ 생산지의 물가는 더욱 하락하고, ④ 수요지의 물가는 더욱 증가한다고 하였다. 결국 ‘조선의 내란=선박의 결핍=운임의 등귀’로

30) 朴宗根, 앞의 책, 37쪽.

31) 《大阪毎日新聞》, 명치 27년 7월 15일.

이어지고 생산지와 수요지의 가격차는 현격히 심해지기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신문은 일본 국내의 여론을 환기시켜 전쟁을 유도하고 있었다.³²⁾ 그러나 이 시기 대부분의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그대로 ‘공황’은 필연의 형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 내부의 경제적 모순은 농민전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전가시키는 것이다. 여하튼 이러한 시각은 후일 청일전쟁 과정에서 일본의 조선이권 획득정책에 반영되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제2차 농민전쟁의 원인으로도 작용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일본의 조선침략과 대청전쟁의 각본은 어느 정도 구색이 갖추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내 일본 외교당국자 사이에 의견이 반드시 일치되어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전쟁수행 방침도 일사분란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공사 오오토리는 온건정책을 취하였던 데 반해 간혹 공사의 업무도 대행했던 1등 서기관 스기무라는 강경책을 견지하였다. 당시 정부측의 강경론은 대본영의 방침에 의거한 것으로 스기무라와 군참모들이 수행하고 있었다.³³⁾ 처음 일병 출동문제에 관하여만 해도 공사 오오토리와 오오시마 요시마사(大島義昌) 여단장간에 불화가 있었다. 그러나 공사의 철병안을 일본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그 역시 대세를 간파하고 곧바로 강경노선으로 표변하였다. 이 시기 강경론이 지배적이었던 일본 조야에서는 청국과의 전쟁 직전인 6월 9일 국권주의적 입장에 서있던 일본내 주전론자와 전쟁불사파들이 대청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전쟁권유와 명분을 축적하고 있었다. 당시 이와 같은 입장을 반영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잡지는 《日本人》인데, 7월 11일 15호의 〈일청의 싸움은 드디어 피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금번 조선사건은 만약 불행하게 국면을 평화로 종결지으면 바다를 건너간 장사, 들에서 暴露한 數旬, 一兵이 칼 써봄 없이, 총 한번 쏘아본 일없이, 양양하며 돌아오면… 동양 천지는 영구히 平和穩安하다고 망령되이 단언할 수 없고 평화는 일시의 幻影이 될 뿐이다. 일청의 충돌은 결코 안개와 같이 소멸될 수 없다. 하루하루 고요함 속에 절박하여 움을 알아야 할 것이다.”³⁴⁾

32) 《萬朝報》, 1894년 6월 9일.

33) 朴宗根, 앞의 책, 32쪽.

일본군이 서울에 들어온 후 조선정부는 곧 청일 양군의 철병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그 대책으로 저지의 방법을 조회하고, 공사를 면회하고자 고문관 르젠드르(Charles W. LeGendre, 李善得)를 인천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이 모두는 시기무라 임시대리공사와 면회가 성립되지 않아 해결될 수 없었다.³⁵⁾ 한편 민영환은 르젠드르와 함께 일본군과 청국군의 철병운동을 전개하였다 한다.³⁶⁾

그러면 이 기간 청국군의 동향은 어떠하였는가. 청국 제독 葉志超는 5월 3일 청국을 출발하여 이틀 후인 5월 5일 충청도 아산에 도착하여 ‘倡亂한土匪’ 정벌에 임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고시하였다.³⁷⁾ 그는 진주하자 마자 농민군 동향을 정탐하고자 5월 11일 제1지대를 전라도 전주에 파견시켰다. 다시 청국군은 5월 26일 충청도 공주에 도착하여 농민군이 집결해 있는 전라도로 전진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농민군의 활동은 두드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국군 출병의 소식을 듣고 해산하였다고 정찰결과를 보고한 후 5월 28일 그대로 공주에 주둔하였다. 섭지초의 부대는 6월 8일 아산으로 회군하여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다.³⁸⁾ 그리고 농민군의 정세를 정찰한 섭지초는 6월 6일 ‘東匪’는 이미 진정되었고, 철회하여도 명분상 손해가 없어 일본군과 동시에 철병해도 될 것이라 주장하였고 ‘초가을에 서서히 대거를 도모’하자고 본국정부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6월 12일 철회되고 오히려 6월 17일 아산주둔 군대 외에 추가파견이 결정되었다. 그 결과 6월 21일 3척의 배로 증원병이 아산에 도착하였다. 증파된 병사들은 다음날 白石浦에 상륙하여 이후 성환에 근거하는 한편, 1천 명의 군사를 천안에 진주시켰다.³⁹⁾ 이들은 주둔하고 있던 충청도 각처에서 농민군의 동향을 계속 탐색하면서 본국정부의 훈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34) 《日本人》 15호(政教社, 명치 27년 7월 18일), 1~2쪽.

35) 《秘書類纂 朝鮮交涉資料》中, 명치 27년 6월 11일, 大島公使帶兵入京ノ顚末, 375~376쪽.

36) 《大阪毎日新聞》, 명치 27년 6월 26일.

37) 《隨錄》(京都大 河合文庫 소장자료), 갑오 5월 10일, 〈甘結〉.

38) 參謀本部 編, 《明治 二十七・八年 日清戰爭》1(동경인쇄주식회사, 1904), 77~84쪽.

39) 《明治 二十七・八年 日清戰爭》1, 86~90쪽.

반면 일본공사 오오토리는 전라도의 “亂徒들은 아직 평정되지 않았다”라고 일시적 휴전상태로 인정하고 있었다. 공사는 농민군들이 다만 위축되어 전주에서 금구·고부로 퇴거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군대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하여 공사관과 일본상인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⁴⁰⁾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일정하게 의견을 같이하고 있었던 安駟壽도 농민군의 재발을 우려하는 한편 5월 17일 일본공사와의 비밀담화에서 일본군대의 주둔을 청원하였다.⁴¹⁾ 일본은 청국과의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사이에 농민군이 서울에 들어갈 것을 우려하였다. 만약에 사태가 예상과 같이 전개된다면 이는 자국 공사관·영사관 및 거류민의 安危와 직결되는 것으로 조기에 개입, 즉각 병사를 파견하여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일본 국내에서는 청일 양군의 출병으로 인한 농민군의 전주성 철수는 ‘불가사의한 일’이나 이는 일시 잠복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⁴²⁾ 그러므로 조선과 청국의 일본군 퇴거 요구에 대해 그 대응책으로 농민군 재기의 움직임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진실로 평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철병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는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⁴³⁾

이와 같은 농민전쟁에 대한 청·일의 인식차는 일본측 대표인 코무라 슈타로(小村壽太郎)와 청국측 대표 孫毓汶의 대화에서 확연하게 나타난다. 코무라는 농민군은 청·일병 출동소식을 듣고 각처에 잠복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본과 청국은 양국 병사의 주둔 필요성을 의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손毓汶은 전라도의 내란은 전부 진정되었고 농민군도 대부분 항복하였다 하여⁴⁴⁾ 이를 양국이 동시철병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6월부터 조선의 ‘내정개혁’에서 ‘종속’으로 명분을 전환한 일본은,⁴⁵⁾

40) 《駐韓日本公使館記錄》3, 1894년 6월 17일, 機密第112號 本66, 일본군의 입경 문제로 한국정부와 오고간 문서 제50호, 86쪽.

41) 《駐韓日本公使館記錄》4, 1894년 6월 24일, 發第85號, 조선국 政情에 관한 정보보고, 136쪽. 이와 아울러 홍계훈의 초토사군은 당시 군산에 정박한 筑紫艦에 병기와 탄약을 공급하였다 한다(《大阪毎日新聞》, 명치 27년 6월 22일).

42) 《時事新報》, 명치 27년 6월 27일.

43) 《東京日日新聞》, 명치 27년 7월 3일.

44) 《日韓外交資料集成》4, 7월 9일 오후 4시 조선사건에 관해 總署 王大臣과의 면담개략, 77~78쪽.

왕궁점령·청일전쟁 도발 직전인 6월 14일 영국과 〈영일개정조약〉을 조인하는 등 조선 경략시 영국의 협력을 얻는 데 성공하였다. 영국측 조약대표인 킴벌리(Kimberly)외상은 이 조약은 “청국의 대병을 패주시키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세한 것이 된다”고 하면서 다가를 청국과의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를 전망하였다.⁴⁶⁾ 영국은 청일전쟁뿐만 아니라 이후 러일전쟁기에도 일본과 몇 차례의 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전쟁 승리와 조선 지배정책 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정도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당시 일본의 대조선 침략 파트너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영국의 외교적 지원에 고무된 일본정부는 6월 17일 오오토리공사에게 청국을 상대로 한 개전방법을 일임하였다. 이날부터 경부 군용전선선 가설에 착수하였다. 이에 오오토리는 6월 18일 조선측에 청국군 퇴거와 굴욕적 불평등 무역조약으로 악평높던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리고 청국과의 개전에 즈음하여 전쟁에 임하는 온·강 양면의 ‘표리 2개주의’를 채택하였다.⁴⁷⁾ 무츠에 의하면 이는 표면에서는 “이루어진 평화를 파괴하지 않고, 국가의 영예를 보전하고, 일청양국의 권력 평 균을 유지”한다고 하면서, 이면에서는 “전력을 다하여 당초의 목적을 관철”하는 것이었다.⁴⁸⁾ 이에 대본영에서는 ① 해전에서 승리하여 제해권을 수중에 넣을 때는 육군은 북경으로 돌입한다. ② 해전의 승패가 미결될 때에는 조선의 유지를 피한다. ③ 크게 패하여 제해권을 상실할 경우는 일본은 대륙으로부터 빠진다는 3가지의 상이한 전략적 개념을 정하였다. 당시 일본정부는 패전상태까지 염두에 두면서 계획을 진행시킬 정도로 전쟁의 승리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이후 전쟁 진행과정에서 일본은 자국측에 가장 유리한 ①안에 근접하는 형태로 계획을 추진해 나갔다.⁴⁹⁾ 이와 같은 일본의 전쟁방침에 대해 이미 6월 12일 이전부터 조선상인들은 청·일간의 一戰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감지하고 일본인으로부터 상품주문을 중단하고 잔금 회

45) 朴宗根, 앞의 책, 43쪽.

46) 《岩波講座 世界歴史》近代 9-10, 東洋篇 VII(1978), 426쪽.

47) 藤村道生, 앞의 글, 23쪽.

48) 《蹇蹇錄》, 17쪽.

49) 藤村道生, 앞의 글, 26쪽.

수에 분주하고 있었다.⁵⁰⁾ 개전 1달 전부터 전쟁의 움직임은 민간에서도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었다.⁵¹⁾

청일전 이전 1893년부터 전쟁을 미리 계획한 일본군부는 농민군의 동향과 약 등 첩보활동에 주력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정보수집을 하고 있었다. 참모차장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은 1893년 4월 이치지 고우가이(伊知地幸介)와 다무라 이요조(田村怡興造) 두 명의 少佐를 조선과 청국으로 들어가게 하였는데, 이들은 첩보활동을 마치고 동년 8월 귀국하였다. 이 시찰에 기초하여 이후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하던 1894년 5월경에는 경성공사관附 武官 와타나베 데스타로(渡邊鐵太郎) 대위 및 참모본무원 이치지소좌가 부산과 경성에서 첩보활동을 하였다.⁵²⁾

한편으로는 본국내의 浪人을 조선에 진출케 하고 농민군과 접촉시켜 재봉기를 부추기고자 하였다. 특히 일본정부의 배후지원으로 조선에 진출하게 된 天佑俠를 비롯한 일군의 낭인배들은 자신들이 마치 농민군에 결정적인 힘을 부여할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다. ‘義俠의 革命軍’을 자처한 천우협은 전주화약에 따라 상대적으로 일본군의 조선진출과 청국과의 개전 명분이 빈약해지자 이에 새로운 빌미를 마련하려고 부심하였다. 이는 국내의 이른바 ‘對外硬派’도 동일한 것이었다.⁵³⁾ 비록 그들의 행로에는 미심쩍은 바가 많지만, 청일전쟁 직전 농민군의 정세파악을 위해 천우협의 다케다 한시(武田範之) 등은 농민군을 방문, 이들의 의견과 목적을 정탐하고,⁵⁴⁾ 이를 본국정부와 대본영에 보고하여 전쟁수행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 것만은 명백한 것 같다.⁵⁵⁾

50) 《駐韓日本公使館記錄》3, 1894년 7월 14일, 臨庶第39號, 貿易商 田中良助의 聞取書, 203~204쪽.

51) “어느 누가 말을 전하기를 袁大人이 馬山浦에서 싸움을 신청하고 大鳥圭介는 城內에서 싸움을 청하였다고 한다”(崔鳳吉, 《歲藏年錄》, 갑오년 6월초 1일).

52) 《明治二十七・八年 日清戰爭》1, 94~95쪽.

葛生能久, 《日支交渉外史(上)》(黑龍會, 1938), 225쪽.

5월 30일 귀국한 伊知地 소좌의 복명을 받아 일본정부는 파병을 결정하게 된다.

53) 葛生能久, 위의 책, 220~221쪽.

54) 《二六新報》, 1894년 11월 20일.

55) 천우협 낭인들과 농민군 지도부의 접촉문제는 姜昌一, 〈天佑俠と‘朝鮮問題’-‘朝鮮浪人’の東學農民戰爭への對應と聯關して〉(《史學雜誌》97-8, 1988) 참조.

천우협과는 별도로 전직 군인 출신인 우미우라 도쿠미(海浦篤彌)와 그의 동행인 곤토 겐키치(近藤賢吉)·야마가타 이노스케(山縣伊之助)도 6월 18일 전봉준과 회견하여 그에게 재봉기를 촉구하였다 한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농민군 추동설’은 실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점이 많으며 그들의 권유에 따라 농민군이 재봉기했다는 것도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면 청·일군의 조선출병과 관련하여 이 시기 농민군 동향은 어떠하였는가. 전주성을 철수한 농민군은 집강소에서 각처에 통문을 돌려 擧兵을 절제하고, 사태추이를 관망하고 있었다. 6월 중순 경 태인·담양 등의 농민군은 집강소의 농민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고 있었다. 이 지역 대다수의 농민은 농민군에 편입되어 있었다. 그와 같은 사실은 다음의 기록에서 알 수 있다. “태인 담양간 촌락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土民은 대개 道人 아닌 자가 없었다. 門頭에 ‘道人이 아니면 이 문에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표찰을 걸은 2, 3 가옥이 있어 이 지방의 人氣를 알 수 있다.”⁵⁶⁾

일본인 여행객의 보고에 의하면 집강소 활동에 주력하고 있던 전봉준·孫和中 등 농민군 지도부는 청일 양국의 출병이 불가하다는 사실과 각국 공사에게 군함 및 군대의 철회를 유세할 목적으로 공주를 거쳐 서울에 진출코자 한다는 풍문이 있었다 한다.⁵⁷⁾ 이를 통해 전봉준 등은 적어도 가을에 다시 봉기하려고 계획하였고,⁵⁸⁾ 대일전 준비에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9월의 제2차 농민전쟁에 대비한 전봉준 진영의 준비상황은 크게 3가지 방향 즉, ① 30여 명의 장교로 하여금 농민군 무장대를 훈련시키고,⁵⁹⁾ ② 재정적 준비, ③ 민심의 수습⁶⁰⁾을 통한 물리력 확보에 치중하고 있었다.

〈趙宰坤〉

56) 海浦よし編, 〈東學黨視察日記〉(《初齋遺稿》), 85쪽. 初齋는 海浦篤彌의 號다.

57) 《駐韓日本公使館記錄》3, 1894년 7월 23일, 臨庶第48號, 5월 14일부터 전라·충청지방을 여행한 상인 白木彦太郎의 聞取書 要點, 215~217쪽.

58) 《初齋遺稿》, 91쪽.

59) 《初齋遺稿》, 93쪽.

60) 《初齋遺稿》, 99쪽.

2. 청일전쟁의 발발과 농민군의 정세인식

쿠데타를 통하여 친청 민씨정권을 뒤엎고 친일정부 수립을 구상하고 있던 일본정부는 청국과의 개전이라는 급박한 사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6월 중순에 가면 조선문제에 관한 일체의 自決權을 오오토리공사에게 부여하여 조선 지배정책 추진을 본격화하기 시작한다.¹⁾ 일본정부는 자신들의 출병목적은 “청과의 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정부의 개혁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이 목적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도 용서 못하고 전쟁도 불사할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²⁾ 청일전쟁 직전에 이르기까지도 일본군의 정탐활동은 계속된다. 특히 6월 11일 노구치(町口)중위 등 일본군의 평양정찰은 그곳 민중의 강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고, 中和에서 임무를 계속하였으나 그것조차 여의치 않아 다시 황주로 퇴거하였다.³⁾ 이러한 시기에 일본은 6월 21일 새벽 그들의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 궁궐수비 조선군을 무장해제시키고, 곧 이어 기존의 정부 구성원들을 축출하는 한편 새롭게 친일정권을 수립시켰다.

甲午倭亂 또는 경복궁 쿠데타로 불리는 일본군에 의한 왕궁점령은 중앙정부의 물론 재야 모두 일본에 의해 국권이 종속될 풍전등화의 위기로 인식되었던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농민군의 활동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왕궁을 일본군이 점령하였다는 소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삼남지방에까지 전파되었다. 이에 전라도 일부 집강소의 농민군은 6월말부터 군사를 다시 일으키기로 논의하고,⁴⁾ 일본군과 그들 거류민을 쫓아낼 목적으로 무장을 강화하여 즉각 복상하였다. 利仁에서는 대규모 군중집회를 개설하여 결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⁵⁾ 영남의 농민군도 즉각 봉기에 돌입하였다. 특히 이 지역

1) 《時事新報》, 1894년 7월 17일.

2) 《大阪毎日新聞》, 명치 27년 7월 19일.

3) 參謀本部 編, 《明治 二十七八年 日清戰爭》2(동경인쇄주식회사, 1904), 1~2쪽.

4) 《東京日日新聞》, 1894년 8월 5일.

의 경우 일본군의 상주 낙동과 함창 태봉의 병참기지 설치는 농민군을 크게 자극하는 것이었다.⁶⁾ 7월 1일 무렵 농민군들은 충청도·전라도·경상도 각처에서 봉기에 돌입하는 등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⁷⁾ 충청도 黃山의 경우 이 기간 두 차례의 봉기 소식을 단편적으로 접할 수 있는데, 첫번째 봉기에서 특이한 것은 이 지역 농민군은 다른 지역보다는 며칠 앞선 6월 22일~23일 사이에 봉기에 돌입한다는 점이다. 그 목적은 청국인과 단결해서 서울로 공격해 들어가겠다는 계획이었다 한다.⁸⁾ 그렇지만 날짜상으로 볼 때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이 이루어진 하루 뒤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즉시 소식을 접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곳도 여타 지역과 비슷하게 일본군의 왕궁 점령 소식을 듣고 청·일개전이라는 위기의식과 관련 7월초 재차 봉기에 돌입, 軍需를 확보하면서 계속해서 인접한 강경 지역으로 모여들고 있었다.⁹⁾ 그러나 이때까지 농민군 측은 조직적이고 본격적인 대일항전을 준비하는 단계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은 경복궁 점령으로 인해 분명 국권이 위기상황에 돌입하였음을 감지한 농민군의 상황인식과 대응임은 분명하다.

6월 21일 경복궁 침입을 전후로 한 기간 청일군의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다수의 청국군은 평양을 중심으로 조선 북부지역에 포진하고 있었다. 충청도에서는 농민군 토벌을 위해 각처로 파견되었던 일부 군사들도 아산으로 귀환하고 있었다.¹⁰⁾ 반면 왕궁을 점령한 일본군은 이후 곧바로 교전을 위해 청국군 주력이 주둔하고 있던 아산지역으로 전함을 대거 급파하는 형국이었다. 6월 23일 오오토리공사는 조선정부에 압력을 가해 그로부터 청국군의 ‘驅逐依賴’를 획득할 수 있었다.¹¹⁾ 이날 일본 해군은 아산 앞바다 풍도 일원에 있

5) 洪性讞, <1894년 執綱所期 設包下の 鄉村事情>(《東方學志》39, 1983), 70~72쪽.

6) 申榮祐, <1894년 영남 예천의 농민군과 보수집강소>(《東方學志》44, 1984).

7) “충청도뿐만 아니라 전라도도 다시, 각도에 있어서도 모두 舊 7월 1일로 봉기 하였다”(《大阪毎日新聞》, 명치 27년 8월 20일).

8) 《駐韓日本公使館記錄》3(국사편찬위원회, 번역본, 1988), 1894년 8월 16일, 臨庶第78號, 충청도 黃山地方 東學黨 叛亂上狀 文書서 별지보고, 240~241쪽.

9) 《駐韓日本公使館記錄》3, 1894년 8월 10일, 臨庶第44號, 충청도 黃山의 동학당 叛亂 等에 관한 별지보고, 236~238쪽.

10) 《明治 二十七・八年 日清戰爭》1, 117쪽.

11) 朴宗根 著, 朴英宰 譯, 《淸日戰爭과 朝鮮: 外侵과 抵抗》(一潮閣, 1992), 76~77쪽.

던 청국함대를 기습적으로 선제 공격하였다.

이로부터 청일전쟁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일본 외무대신 무츠는 청일 교전의 원인은 ‘조선의 독립’과 ‘내정개혁’¹²⁾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그는 아산전투도 조선정부의 위탁을 받아 청국군을 쫓아내는 일로부터 발단된 것이라고 일본정부가 국제적으로 표명하였지만, 실제로는 일·청 양국간의 문제라고 보았다.¹³⁾ 여기서 무츠는 일본측의 궁극적 목표는 청국과의 전쟁을 통한 동아시아 제패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치밀한 사전 계획과 준비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작전 수행은 여러 점에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아산전투 직후 일본군은 곧바로 성환에서 청국군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전투과정에서 어려웠던 것으로는 우선 병참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일본군을 침략군으로 보고 있었던 조선민중의 반일감정과 비협조, 완강한 저항, 대다수 지방관의 일본군 지령 회피, 대원군을 비롯한 정권 담당자의 비협조뿐 아니라 농민전쟁의 재발 우려 등 전투 외적인 상황의 전개였다. 마지막 문제와 관련하여 7월 1일 천황의 대청 선전포고 후 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 외무대신은 주일 미국공사를 설득하여 농민전쟁의 근원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미국정부에 전보토록 하였는데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공사는 본국정부에 電稟하였다.¹⁴⁾

심지어 6월말 수원에서는 징발된 인마의 도망에 대한 책임추궁을 우려한 보병 제21연대 3대대 대대장 코시 마사츠나(古志正綱)가 자살하는 사건까지 있었다.¹⁵⁾ 만약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연출된다면 전투에서 이기고도 전쟁에서 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이 전쟁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일본은 후일 8월의 평양전에서는 각별히 유념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일본군의 압승으로 귀결되었다. 청국군은 일본군의 우세한 화력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패배하였다. 7

12) 陸奥宗光, 《蹇蹇錄》(岩波書店, 1940), 121쪽.

13) 《蹇蹇錄》, 104쪽.

14) 《蹇蹇錄》, 78쪽.

15) 《明治 二十七・八年 日清戰爭》1, 131~132쪽.

월 4일 성환은 일본군에게 함락되었고, 청국군은 조선 남부에서 축출되었다.

그러면 청국은 왜 초기의 전투에서 어처구니없는 참패를 당하였는가. 청국은 전쟁으로 다가올 결과를 오판하고 자국의 승리를 당연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¹⁶⁾ 또한 아산과 성환전투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7월말 이후에 이르기까지도 청국군은 즉각 전면전을 구상하지 않고 완만한 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평양에 장기 주둔하고 남하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¹⁷⁾ 이러한 오판된 장기주둔책으로 일본은 다음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고 이후 일본군대는 계속 조선에 증파되었다. 결국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평양전투의 승리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산·성환전투의 결과 일본측 입장에 동조하는 일부 지역의 지방관은 일본군의 승리 격문을 자신의 관내에 붙이고 兵杖의 운반에 병참부 인접지역의 주민을 동원하였다.¹⁸⁾ 초전의 승리에 고무된 일본은 이후 진무책을 고안하여 이를 조선인민에게 관철시킬 좋은 기회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7월부터 한편으로는 강경진압책을 다른 한편으로는 회유와 동화정책을 채택하였다.¹⁹⁾ 이는 제2차 농민전쟁 이전 일본군의 대 농민군 정책의 골격을 수립한 것이며, 종래의 견제적 작전에서 공세적 작전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²⁰⁾

그것은 7월 17일 일본 각의에서 甲乙丙丁의 조선정략 4개안 수립에 반영된다.²¹⁾ 이는 아산·성환전투 직후 오오토리공사의 새로운 정세에 대처할 일본의 대조선정책 요구에 의한 것이다. 그 골자를 보면 甲案은 ‘일본 승리 후

16) “현금 왜노는 궁성을 점거하고 畿近에 주둔하여 좌우를 엿보고 있다. 인천·공주·평양의 해륙 부근은 넘지 못하고 있다. 생각컨대 天兵에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이다”(《清季中日韓關係史料》6, 臺北: 중앙연구원대사연구소, 3606쪽).

17) 《駐韓日本公使館記錄》5, 1894년 8월 31일, 機密第176號 本100, 조선정부 내정개혁의 전반적 진행상황, 29쪽.

18) 李晩燾, 《響山日記》(국사편찬위원회, 1985), 갑오 7월 9일, 687쪽. 보수관료 출신으로 경복 禮安의 향제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이만도 역시 이곳에서 일본군 군수물자의 강제운반에 참여하였다.

19) 伊藤博文 編, 《秘書類纂 朝鮮交涉資料》中(비서류찬간행회, 1936), 명치 27년 8월, 朝鮮國內戰後警察ニ關スル上申, 405쪽.

20) 일본육군성 편, 《明治軍事史》(原書房, 1966), 913쪽.

21) 《蹇蹇錄》, 134~139쪽.

자치론’, 乙案은 ‘보호국화론’, 丙案은 ‘일청제휴론’, 丁案은 ‘조선중립화론’이라 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일단 乙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보다 강력한 조선침략 정략을 채택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에 이해관계를 가진 외국의 간섭이 우려되는 등 위험부담이 따를 수 있는 것이었다. 결국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다면 조선정책은 열강의 반응을 예의 주시하는 선에서의 ‘보호국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산전투 후 농민군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對淸戰 수행과 관련한 일본군의 조선인 인부 동원과 식량 징발에 대해 7월 하순 경 상도 함창현의 농민군은 “縣官을 포박하고 책하기를 인민을 무임으로 일본을 위해 사역케 했다고 하고 인민에게는 일본의 용역에 따르지 말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현관의 명령에 응하는 사람이 없고 현관은 두려워 사직하거나 또는 거처를 옮겨 그의 소재지를 알지 못할” 정도가 되어 있었다 한다.²²⁾ 아산전투 후에도 대다수의 관료층과 농민들은 현재는 일본군이 승리하였지만 결국에는 청국군에게 패망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당시 많은 조선인들은 청국함대, 특히 북양함대는 규모와 질에 있어 일본의 함대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심지어 청국이 선박에 군기와 군량을 싣고 바다를 건너 일본 내륙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였다. 이 기간 俄羅斯(러시아) 병사 20만 명이 討倭를 위해 우리 국경에 머물고 있다는 헛소문도 있었다.²³⁾ 이 때 농민군 지도부는 비밀리에 사자를 서울에 보내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 시키고자 하였다.²⁴⁾

한편 충청도 아산의 농민군은 아산전투 후 다시 봉기한다. 청국군의 아산 도착 직후 곧바로 퇴산한 이곳의 농민군은 이 기간 재집결하고 평양에 있는 청국군과 제휴하여 전쟁에 총력을 기울여 일본군을 퇴치하고자 하였다. 이 지역은 초기 청일전쟁의 중심지로서 청국군의 주력이 주둔하고 있었던 지역적 특수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 곳의 농민군은 성내에 “지금 형세로 보아 청국이 와서 돕고(청일전쟁) 본국에서 의병을 일으켜(농민전쟁) 내외

22) 〈中路兵站監本部陣中日誌〉, 67쪽(朴宗根, 앞의 책, 200쪽에서 재인용).

23) 필자 미상, 《記聞錄》, 갑오 7월 17일 및 朴冀鉉, 《日史》, 갑오 8월 19일.

24) 《二六新報》, 1894년 11월 14일, 〈동학당의 진상(5)〉.

에서 협공하면...”이라는 내용의 방문을 붙여 복상을 통한 일본군의 축출을 호소하였다.²⁵⁾ 8월 중순 전라·충청도의 농민군은 연합하여 대대적인 서울진격전을 구상하였고,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은 대본영에 구원병 추가파견을 요청하였다.

이미 전봉준 등 집강소의 농민군 지도부는 일본군의 왕궁점령과 아산전투의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전봉준은 7월초 남원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감사 金鶴鎭측으로부터 파견된 사마 宋寅會로부터 들었을 것이다. 일설에 따르면 전봉준은 곧바로 밀사를 대원군에 파견하여 그의 섭정을 지지하고 개혁을 권유하였다 한다.²⁶⁾ 그러나 당시 집강소 활동에 주력하고 있던 전봉준은 주로 내부문제에 치중하여 개혁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었다. 이 당시까지도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부는 일본군의 조선진출과 왕궁점령을 식민지화의 결정적 위기로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²⁷⁾ 이들은 농민전쟁을 지속시키면서 농민적 지향을 확산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일찌감치 복상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군의 갑작스런 입성과 그로 인한 민씨정권의 붕괴로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내가 원래 병을 일으킨 것은 경성에 가서 정부의 간적을 없애기 위해서인데, 어찌 그들의 말을 기다릴까. 그런데 우리들의 상경에 앞서 일본병이 많이 경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룰 수 없었다(《東京朝日新聞》, 1895년 3월 5일, 〈東學黨大巨魁生擒(2월 18일 경성발)〉; 강창일, 〈갑오농민전쟁 자료말굴: 전봉준 회견기 및 취조기록〉, 《사회와 사상》 창간호, 1988, 256~257쪽에서 재인용).

이에 그들은 제1차 전쟁의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일본과 청국의 군사적 동향과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집강소에서 결정적 시기의 도래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산·성환전투 직후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부의 구체적 동향은 다음과

2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5, 1894년 9월 26일, 機密第189號 本112, 충청도 동학당에 관한 회보, 47~49쪽.

26) 《二六新報》, 1894년 11월 14일, 〈동학당의 진상(5)〉.

27) 鄭昌烈, 《甲午農民戰爭研究—全琫準의 思想과 行動을 중심으로—》(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1), 236~237쪽.

같다. 7월 15일 농민군 지도부는 남원에서 청국과 일본의 개전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농민대회를 개설하는 한편 집강소의 통치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남원대회 이후 전봉준과 손화중·金開南 3인의 농민군 지도부는 청일전쟁 개전 직후의 정세인식과 농민군이 향후 취해야 할 방략에서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黃玿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봉준이 개남에게 말하기를 지금 시세를 보니 倭와 淸이 싸워 한쪽이 이기게 되면 반드시 군사를 우리 쪽으로 돌릴 것이다. 우리 무리가 비록 많으나 오합지졸이어서 쉽게 달아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귀화를 빗대어 각 고을에 흩어져 있다가 서서히 그 상황변화를 살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니 개남이 대중은 한번 흩어지면 다시 모으기 어렵다 하여 듣지 않았다(黃玿, 《梧下記聞》 2筆, 92쪽).

전봉준은 농민군을 해산시킨 후 기회를 포착하자고 하였고, 김개남은 대일 전쟁 조기강행론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손화중은 조기해산론을 주장하였다. 비슷한 입장에 있었던 전봉준과 손화중은 8월말까지도 ‘官民相和’의 집강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²⁸⁾ 김개남은 이에 극력 반대하고 전면전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특히 전봉준과 김개남의 의견대립은 상호 접합점이 없었던 것으로 향후 제2차 전쟁시기에 가면 농민군이 집중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는 큰 요인이 되었다.

7월 17일 茂朱집강소 앞으로 보내는 통문에서 전봉준은 “바야흐로 外寇가 궁궐을 범하여 국왕을 옥보였으니 우리들은 마땅히 목숨을 걸고 義로써 싸워야 하나… 그 화가 宗社에 미칠지도 모른다. 물러나 은둔하여 시세를 관망한 연후에 세력을 모아 다음 계책을 도모하는 것이 萬全之策이다”²⁹⁾ 라고 농민군의 현실적 입장과 향후 방략을 설명하고 있다. 이 무주통문에서는 주로 청국과 일본의 개전에 유념하면서 집강소내의 단속을 강화하는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그 내용에서 볼 때 이 기간 전봉준은 경복궁에 침입한 일본

28) 鄭昌烈, 위의 책, 250쪽.

29) 《隨錄》(京都大 河合文庫 소장자료), 갑오 7월 17일, 茂朱執綱所.

의 진의를 파악하고 탐색하는 데 치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전봉준은 7월 준승경에 이르기까지도 전면전을 구상하고 있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농민군의 대일항전의 전면화는 평양전투 후 조선의 ‘보호국화’가 무르익어 가는 시기인 9월말 이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趙宰坤〉

3. 평양전투와 농민군의 동향

먼저 평양전투 직전 청일군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산과 성환의 전투에서 패한 청국병의 다수는 葉志超의 인솔 아래 관동과 관북으로 우회 퇴주하여¹⁾ 평안감사 閔丙奭의 적극적 원조로 평양에서 합류하게 된다. 여기에는 경복궁에서 왕실호위를 하다 일본군에 의해 무장해제 당하고 쫓겨난 조선수비대도 합세하였다. 나머지 패잔병은 개별적 고립적인 활동을 하던가 아니면 농민군의 진영에 투숙하고 있었다.²⁾ 고종의 명을 받은 민병석은 7월 20일 이홍장에게 전보하여 개화내각을 부정하고 원병을 재차 청원하였고, 고종은 7월 28일 민병석에게 다시 이를 전보토록 하였다.³⁾ 이보다 며칠 앞서 고종은 자신이 발표한 政令은 倭人의 협박과 꾀박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본인의 의지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뜻을 외무참의 閔商鎬를 통해 중국에 전달한 일이 있었다.⁴⁾ 농민군과의 대결 문제는 이 단계에 가면 부차적인 것으로 이해될 정도로 아산과 성환전투에서 청국의 패배는 조선정부로 하여금 후일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충격을 던져주었다. 또한 예상되

1) 《東學亂記錄》上(國史編纂委員會, 1959), 〈甲午實記〉, 59쪽.

2) 그러나 이 문제로서 농민군이 친청적·사대적 성향을 지녔다고 할 수 없다. 한 예로 청국 패잔병 500여 명이 전봉준이 있던 논산 대본영으로 와서 받아들여기를 애원하자 ‘정상이 불쌍하여 물리치지 않고’ ‘주의를 묻지 않고’ 軍中에 받아들였다고 한다(吳知泳, 《東學史》 필사 초고본 三, 1924, 59~60쪽).

3) 田保橋潔, 《日清戰役外交史の研究》(東洋文庫, 1965), 333~334쪽.

4) 《清季中日韓關係史料》6(臺北: 중앙연구원대사연구소), 7월 22일 北洋大臣 李鴻章, 3053쪽.

는 평양전투에 대해 초조해 하고 있었다.

평양전투 이전인 7월 10일부터 평양 근방 中和에서는 청·일군 사이에 국지전이 있었다. 그러나 성환전투 이후 전투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군은 ‘韓民’의 거센 반항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이곳의 여단은 중요 경찰기관을 상실하였다.⁵⁾ 이는 일본군 활동의 취약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일본의 의지와는 달리 평양전투가 지연되는 한 원인이 되었다. 여기서 ‘한민’은 농민군인지 일반민인지 자료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 농민군의 계통적 활동이 파악되지 않는 이곳의 지역적 특성상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청국군의 7월초 평양 도착 후 일본인에 대한 그곳 인민들의 적개심은 더욱 증가하였다 한다.⁶⁾

청국은 전쟁이 장기 지연될 것으로 판단하고 제3국의 자연스러운 개입을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방면에 노력을 기울였다. 조선문제는 열강간의 이해관계와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다. 반면 인력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여력이 없던 일본은 이를 간파하고 속전속결주의를 채택하여 빠른 시일내에 전쟁을 승리로 종결짓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은 평양전 직전인 8월 중순부터는 중국인과 조선인으로 변장한 첩자를 서북지역에 침투시켜 청국군의 동태를 파악하고 각종 문서류를 수집하여 이를 병참부 등에 보고하였다.⁷⁾

7월 14일 평산에 통신소를 개설한 일본군은 경찰 수색을 강화하였고, 당시 청국군은 평양을 근거지로 하여 황해도의 봉산과 안악에까지 주둔하면서 평양회전에 대비하고 있었다.⁸⁾ 7월 26일 〈朝日兩國盟約〉 체결 후 일본은 조선 병을 평양회전에 동원시킬 것과, 인부와 식량징발을 조선에 강요하였다. 일본은 아산전투부터 징발문제를 우려하였는데 평양회전을 앞두고 이의 타개는 절실한 문제였다. 그러나 아산전투 때와 마찬가지로 조선인의 반일감정과 동원된 인부들의 도망은 계속되었다.⁹⁾ 8월 2일을 시점으로 북진을 개시한 5

5) 參謀本部 編, 《明治 二十七・八年 日清戰爭》2(동경인쇄주식회사, 1904), 3쪽.

6) 《駐韓日本公使館記錄》5(국사편찬위원회, 번역본, 1990), 1894년 8월 11일, 機密第160號 本89, 旅團 凱旋後の 景況, 15쪽.

7) 《二六新報》, 1894년 12월 27일. 〈변복간첩일기 7〉.

8) 《時事新報》, 1894년 8월 21일.

9) 朴宗根 著, 朴英宰 譯, 《清日戰爭과 朝鮮: 外侵과 抵抗》(一潮閣, 1992), 102~

사단 지휘하의 4團隊는 평양행군시 ① 양곡운반의 어려움, ② 인부의 도피, ③ 도로의 불편, ④ 낮의 폭염과 야간 습냉¹⁰⁾ 등의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대세는 일본 편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일본군 제3사단은 7월 27일부터 30일 사이 원산항에 상륙하였으며 8월 2일 평양을 향해 출발하였다. 한편 용산을 출발, 북진을 시작한 일본군 선행대는 8월 7일 황주를 점령하였다. 이어 8월 17일 평양을 공략하여 함락시킨 일본군은 다음 날 18일 황해해전에서의 승리를 통해 청국의 북양함대를 궤멸시켰다.

일본군의 평양점령과 서해안 제해권 획득의 결과 청국군의 전투력은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었다. 그 반면 일본군은 자유로이 조선 연안을 항행하면서 병력과 군수품 수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¹¹⁾ 이 일련의 전투 승리로 일본은 대륙으로의 진로를 열고, 농민군에 대한 탄압을 단계적으로 가중시킬 수 있게 된다. 8월 18일 외부대신 무츠는 전승지역에 조선군 고급 장교를 파견하여 민심을 복종케 하라고 지시하였고,¹²⁾ 8월 19일 오오토리공사는 평양승리의 전말을 조선인과 재외국민에게 알리도록 지시하였다.¹³⁾ 이는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한편 농민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선무전의 일환이었다. 이날 무츠는 오오토리에 훈령하여 평양전투의 청국군 패주로 이 기회에 조선에 대한 적당한 간섭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 먼저 조선정부에게 일본의 세력확장에 주의할 것을 전달하고 다음으로 제3국에 대한 조선의 외교·내치상의 중대한 사건은 일본공사의 동의를 받은 후 시행케 할 것을 지시하였다.¹⁴⁾ 이는 대조선 정책의 자신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7월 17일 채택된 乙案 즉, ‘보호국화’ 정책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겠다. 이 훈령의 결과 농민군 토벌은 더 적극적이 되었다. 평양전투와 황해해전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103쪽.

10) 《明治 二十七・八年 日清戦争》2, 93~94쪽.

11) 田保橋潔, 앞의 책, 346쪽.

12) 《駐韓日本公使館記録》4, 1894년 9월 17일, 일본군 전승지역으로 조선군 장교 파견 지시, 293쪽.

13) 《駐韓日本公使館記録》3, 1894년 9월 18일, 평양전승전말 상보 요망, 270쪽.

14) 金正明 編, 《日韓外交資料集成》4, 日清戦争編(東京: 巖南堂書店, 1965), 140~141쪽.

지속적인 대청전쟁을 위해 계속 북상하였고 나머지는 농민군 진압을 위해 대거 남하하고 있었다.

평양전투를 앞둔 시기 농민군의 동향과 관련하여 우리의 흥미를 끄는 점은 흥선대원군의 행보이다. 일본에 의해 권력에서 영구히 배제될 위기의식을 느낀 대원군은 농민군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일본측의 기밀문서에 의하면 농민군의 전면적인 움직임에 감지한 대원군은 평양에서 “일청 양군은 반드시 일본군의 패배로 돌아가고 청국군은 곧바로 경성에 돌입하는 경우에 청국과 款을 통하고, 또 일면에는 陽으로 동학당 진무의 효유를 발하고 陰으로 밀사를 보내 동학당을 招集하여 청국군 來着時 내외 세력을 규합하여 일본병을 격퇴할 것을 계획”¹⁵⁾하였다 한다. 즉 대원군은 농민군을 조종하여 서울 진격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점은 대원군이 밀사를 통해 전봉준에게 보낸 〈卽遣三南召募使李建永密示爾等〉이란 밀지내용에서도 확인된다.¹⁶⁾ 그와 같은 사실은 〈기밀문서〉 부록에서도 나타난다. 범부아문의 李秉輝 취조문에 의하면 호서에 있던 대원군의 부하 鄭寅德이 朴東鎭·朴世綱 등에게 제안한 작전구상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① 한 무리는 近畿에 머문다.
- ② 다른 한 무리는 경성에 들어가 종로에 도회하여 萬人疏廳을 개설하는 한편 글을 정부에 보내 각 공사관에 조회케 한다.
- ③ 주상을 상왕으로 받들고 중전과 세자를 폐하고 竣鎔으로 보위케 한다.
- ④ 개화당을 모두 살해하고 ‘自主之政’을 수립한다.
- ⑤ 밀사를 청병에 보내 일병을 협공한다.

(李秉輝가 범부아문에서 취조받을 당시의 자술서. 〈기밀문서〉 중 부록; 李相佰, 〈東學黨과 大院君〉, 《歷史學報》17·18합집, 1962, 15쪽 참조).

8월 대원군과 농민군의 동향을 알 수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일부 호서 농민군 세력은 이준용·대원군과 연결하여 왕권을 뒤엎으려는 기도를 보인

15) 〈東學黨事件に付會審の顛末具報〉 초본(李相佰, 〈東學黨과 大院君〉, 《歷史學報》17·18합집, 1962, 12쪽에서 재인용).

16) 李相佰, 위의 글, 12~13쪽. 이는 평양전투시 일본군이 노획한 문서 중의 일부이다.

다. 鄭喬도 그의 저서에서 대원군 지시에 의해 湖西守宰와 농민군은 협력 북상하여 청국군과 더불어 남북으로 협공하여 일병을 타파코자 하였다 한다.¹⁷⁾ 주요 부분에서는 앞의 자료와 부합되는 견해를 보이며, 이는 《東學亂記錄》의 이병희 공초에서도 상당부분 일치한다.¹⁸⁾

당시 대원군·농민군·조선정부 모두 평양전의 승패 여하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대원군은 평양회전 직후 鄭碩謨를 통하여 김개남에게 접근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전봉준의 지시로 무산되었다. 전봉준의 대원군관은 그리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¹⁹⁾ 봉기진정 효유에 대해서도 전봉준은 정면으로 거부하였다.

평양전투 시기에 가면 농민군의 활동은 이전 아산·성환 전투기에 비해서 더 적극적이 된다. 제2차 농민전쟁을 일으키기 직전 전봉준은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온 궁극적인 목적, 즉 ‘入韓의 本旨’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이를 통해 일본의 ‘보호국화’의 본질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와 같은 점은 “금년 6월 이래 일본이 그치지 않고 계속 우리 나라에 온 것, 이는 반드시 우리 나라를 併呑코자 하는 것이다”라는 전봉준 口供書(口供草)의 내용에서 알 수 있다.²⁰⁾ 전봉준은 평양전투 직전인 8월 11일 전주 전라감영에서 일본인 탐문자와 접견하고 필담으로 “그런데 우리들의 擧兵은 생각지도 않게 그 매개가 되어 금일 淸日의 兵爭을 보기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이를 千秋의 遺憾으로 여기는 바다”라 하였다.²¹⁾ 이 단계에 가면 전봉준과 농민군에게 조선 영토에서의 청·일간의 전쟁은 ‘천추의 유감’으로 인식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으며, 농민군의 반봉건 사업 추진과정에서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일 전면전을 구상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 기간 지방의 반일운동은 주로 일본군의 징발에 반대하여 행해지고 있었는데, 일본군이 북진하는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전개된다.²²⁾ 8월 7일 충청

17) 鄭喬, 《大韓季年史》上(국사편찬위원회, 1971), 고종 31년 7월, 93쪽.

18) 《東學亂記錄》下(국사편찬위원회, 1959), 重犯供草: 李秉輝 再招 및 李秉輝 三招.

19) 이에 대해서는 뒤의 4장 주 13), 14), 15) 참조.

20) 《東京朝日新聞》, 1895년 3월 5일.

21) 《日清交戰錄》12(1894년 10월 16일), 東學黨守令訪問記, 43쪽.

22) 朴宗根, 앞의 책, 196쪽.

도와 경상도에서는 일본군과 그들의 지원세력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병참부를 습격하는 등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²³⁾ 병참부는 청일전쟁의 교두보로 여기를 공격함으로써 일본의 전쟁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한편 평양전투는 농민군 뿐만 아니라 이들과 근본적 입장은 다르지만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던 일부 의병세력의 봉기도 이끌어냈다. 본격적인 의병투쟁의 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갖는 안동을 근거지로 하는 유생출신 徐相轍이 주도하던 이 의병이 격문을 통해 청일전쟁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은 바로 그 예이다.²⁴⁾ 이에 오오토리는 농민군과 의병봉기는 청일전쟁의 작전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하면서 조선정부에 만전의 진압대책을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8월 17일 평양전투에서 이두황이 이끄는 조선의 壯衛營兵과 평양감사 민병석 휘하의 衛戍兵은 일본군과 청국군 양편에 각기 참가하여 전투를 전개하였다.²⁵⁾ 당초 평양의 청일교전시 일본의 전승을 믿지 않던 조선인들은 예상과는 달리 일본의 승리가 전해지자 당황하고 의아해 하였으며, 대다수는 戰果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였다.²⁶⁾ 이는 농민군에서도 거의 동일하였으리라 판단된다.

평양전투 이후 함경도 지방은 일본측 입장을 따르는 새로운 관리가 부임 하였으며 8월말 경부터 일제의 文報는 明治 연호를 사용하였다.²⁷⁾ 이는 일본군이 이 일대의 지배권을 완전히 장악하였음을 의미한다.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서북지역도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일본의 대조선 정책에 평양전투 승리가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것이었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노골적인 내정간섭 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따라서 개화파의 개혁정책도 후퇴 내지는 희석화되고 있었다.²⁸⁾

23) 《駐韓日本公使館記錄》4, 1894년 9월 6일, 추원경부의 지방시찰 보고요지, 283쪽.

24) 《駐韓日本公使館記錄》1, 京第87號, 1894년 9월 28일, 안동의병격문, 123~125쪽.

25) 《明治二十七・八年 日清戰爭》2, 200쪽.

平壤民團役所, 《平壤發展史》, 1914, 512쪽.

26) “淸倭가 평양에서 서로 칼을 접하고 싸웠는데 왜의 사망자는 천여 인이고 청은 수백 인이다”(李晩燾, 《響山日記》, 국사편찬위원회, 1985, 651쪽).

27) 《淸季中日韓關係史料》6, 3694쪽.

28) 鄭昌烈, 《甲午農民戰爭研究—全琫準의 思想과 行動을 중심으로—》(연세대 박

평양전투 이전부터 개화과정부는 일본과 세를 합하여 농민군 토벌계획을 세우고 있었고,²⁹⁾ 이러한 소식은 금방 전국에 깔렸다. 호남의 집강소에서는 다시 농민군을 일으켜 대적하자는 의논이 이루어졌다.³⁰⁾ 이에 따라 8월초에는 충청도 농민군, 8월말에는 전라도 농민군이 본격적인 무력투쟁으로 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³¹⁾ 평양전투 즈음인 8월 경기·충청·전라·경상·강원 '5도 인민' 16명은 연명으로 오오토리공사에 〈陳情書〉를 제출하였는데, 이들 5도 인민이 파악한 농민군 봉기 이유 역시 일본군의 대규모 조선진출에 있었다.³²⁾ 남접과 북접의 연합 시도 또한 청국군의 평양퇴각과 일본군의 제해권 확립 즈음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충청·전라·경상 등지 농민군의 북상준비와 천안 농민군의 일본인 살해 등의 요인으로 8월 24일경 삼남지방은 세금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원활한 수세를 위해 1개 중대와 30명의 순사를 파견하여 조선정부 군대에 협조케 하였다.³³⁾

이처럼 평양전투 이전까지 일본의 조선지배는 안정된 것도 아니었고 당시 戰局 형세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식민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해가는 시기는 평양전투의 결과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기간 전라도 농민군과 경상·충청도 농민군의 행동방략과 향후 행보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전라도는 집강소와 연관하여 주로 내부모순 즉 반봉건의 폐정개혁에 주력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었고, 반면 경상·충청도의 농민군은 斥日의 깃발을 들고 지속적으로 병참부를 습격하는 등 대외모순 해결에 노력하고 있었다.³⁴⁾

당시 전봉준은 반봉건 문제 해결에 시간을 집중 할애하였고 평양전투 이전까지 관망적인 경향이 강하였다. 그리고 8월말 이후에도 전봉준은 ‘官民相

사학위논문, 1991), 249쪽.

29) 《駐韓日本公使館記錄》4, 1894년 9월 6일, 萩原警部の 지방시찰 보고요지, 283쪽.

30) 吳知泳, 《東學史》(필사 초고본 三, 1924), 47쪽.

31) 김양식, 〈1, 2차 全州和約과 執綱所 운영〉(《역사연구》2, 1993), 161쪽.

32) “이번 여름 귀국이 대병을 보낸 후 그(농민군) 세가 더욱 치열하고…”라는 구절(《大阪毎日新聞》, 1894년 10월 4일).

33) 《駐韓日本公使館記錄》4, 1894년 9월 23일, 동학당 진압을 위한 일본군 파견 승인 요청, 297쪽.

34) 《二六新報》, 1894년 11월 8일, 〈동학당의 진상(1)〉.

和之策'을 건지하고 주변세력의 움직임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시간을 벌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는 8월말에도 전면전을 구상하지 않았다. 반면 민과 관의 '相和'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계열인 김개남은 전봉준·손화중의 보류권유를 거부하고 남원 입성 후 농민군을 무장시키면서 인근 지역을 점령하고 8월 25일 大會를 개최, 재봉기의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었다.³⁵⁾ 이와 같은 움직임은 8월말부터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것은 결국 제2차 농민전쟁이 임박하고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趙宰坤〉

4. 일본군의 청국 진입과 농민군의 재봉기

평양의 청국군 후퇴는 일본군이 농민군과 전면전을 전개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평양전투 후 일본군은 '폭도토벌'의 명분으로 농민군에게 방향을 돌렸다. 일본은 이미 2차 봉기 발발 이전부터 본격적인 진압체제를 취하였다. 그 이유는 ① 농민군이라는 위협요소의 존속은 '조선보호국화' 정책과 대청전쟁 진행에 중대한 장애로 그 여파가 북부에까지 확대되기 이전에 뿌리를 뽑고, ② 농민군을 신속히 진압함으로써 열강의 '성가신' 간섭요소를 미연에 저지하는 데 있었다.¹⁾

그 결과 9월 중순 일본 병참부는 대본영에 농민군 토벌에 전념할 군대 특파를 요청하였다. 오오토리공사도 전라도와 충청도의 농민군이 연합하여 서울로 올라온다는 보고를 접하고 9월 19일 대본영 육군참모에게 정벌병력의 증강을 요청하였다.²⁾ 이는 농민군 세력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

35) 김양식, 앞의 글, 161·165쪽.

《梧下記聞》2筆, 91~93쪽.

1) 朴宗根 著, 朴英宰 譯, 《清日戰爭과 朝鮮: 外侵과 抵抗》(一潮閣, 1992), 211쪽.

2) 《駐韓日本公使館記錄》3, 1894년 10월 17일, 동학당 정토를 위한 병력증강 요청, 284쪽.

으로 일본은 곧바로 응원병을 조선에 파견하였다.³⁾ 일본은 9월 중순부터 농민군의 전면적인 재봉기 구도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에 대본영은 농민군에 대한 대대적 토벌작전으로 전환코자 하였다. 이는 청일전쟁 진행과정에서 일본이 계속적으로 승리함에 따르는 자신감에 연유하는 바 크다.

조선정부도 온건책을 견지하던 전라감사 金鶴鎭을 파면하고 농민군 토벌에 강력한 입장을 취하던 충청도 홍주목사 李勝宇를 일시 감사로 임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농민군 진압에 앞서 일본은 서울을 비롯한 각처에 방을 붙여 평양전투의 승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다. 일본군의 평양전 승리 이후 노골적으로 일본편향으로 방향을 세우는 지방관도 생겨났다. 예를 들면 9월 초 해주부사 趙熙一은 관내에 방을 걸어 평양전투의 일본군 승리를 떠들썩하게 알려 황해도 농민군 무마의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였다. 그는 농민들에게 일본군에 협조할 것을 당부하면서 일본군을 비방하거나 평양에서의 일본군 승리를 패배라 말하는 자를 체포하여 엄형을 가하고 있었다.⁴⁾

청일전쟁 초기 일본의 목적은 조선지배에 국한되어 있었던 제한적 전쟁의 의미가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쟁 수행과정에서 예상 밖으로 무기력한 청국군의 모습을 보자 본래의 정책을 대폭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평양과 황해전투 직후 제2군의 편성에 착수하고, 청국 본토의 분할을 목적으로 대륙침략전쟁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9월 26일 일본군의 청국 영토 진입이후 전쟁은 성격변화를 보이게 된다. 일본군이 압록강을 넘어 청국 영토로 진입하기 직전까지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청일전쟁과 농민전쟁이라는 2개의 전쟁이 병행되고 있었다.⁵⁾ 이 양자는 성격이 서로 다른 종류의 전쟁이나 상호 밀접한 관련과 영향력을 가지면서 전개된다. 그러나 이제 청국군이 사라진 조선내에서는 일본은 농민군의 활동 저지에 주력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군이 농민군 토벌에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평양전투 한달여 후부

3) 《日清交戰錄》 13(1894년 10월 20일).

4) 《大阪朝日新聞》, 명치 27년 10월 17일.

5) 농민전쟁의 실태를 알 수 있는 한 자료에 의하면 “客擾連至本倅”라 하여 조선 내에서의 청국과 일본과의 전쟁을 ‘客擾’, 즉 남들의 소란(전쟁)으로 평가하고 있다(金若濟, 《金若濟日記》 권 3, 조선사편수회 필사본, 1929, 갑오 11월 20일조).

터였다. 총리대신 金弘集은 일본의 청국 봉황성과 여순구 함락을 기대하면서 충청관찰사 朴齊純에게 보내는 서한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전쟁이 종결된 후 일본 陸兵 10만이 개선하고 그 소식이 匪徒에게 들리면 당연히 이들은 소산할 것이고 그 날은 멀지 않았다. 매우 관심이 되는 바이다.”⁶⁾ 즉 대청전 수행을 위해 국경을 넘어갔던 병력이 개선하는 즉시 농민군 토벌에 투입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이어 9월 21일 농민군 焦土를 위해 일본은 신정부와 결탁, 신정부는 이를 수락하고 농민군에 대한 대대적 ‘살륙정책’을 공식적으로 취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조선에 대한 정책 변화는 곧바로 공사교체로 연결되었다. 즉, 오오토리가 퇴임하고 9월 27일 이노우에카오루(井上馨)가 주한일본공사로 부임하였다. 대부분의 조선정책을 본국의 훈령에 따라 하고 일등서기관 스기무라 등 강경파의 견제에 의해 개인적 입지가 약했던 오오토리와는 달리 전직 내무대신이자 일본 정계의 원로로서 본국정부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이노우에는 신임공사로 부임하자마자 대원군 추방작전을 전개한다. 그는 10월 1일 대원군과 마주한 자리에서 일본의 토벌군 파견은 조선정부의 청원에 의해 부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명분화하고 있다.⁷⁾ 이노우에는 11월초 대원군의 ‘농민군 선동’과 청국군 지원 요청 서한 등을 문제 삼고, 나아가 대원군의 종손자 李堉鎔과 농민군이 관련되었다는 설 등을 문제삼아 결국 대원군을 정계에서 추방하였다. 일본군이 청국 영토로 진입한 직후로 청일전쟁의 종반이었던 이 기간에 일본이 대원군을 추방한 것은 국가원로로서의 그의 상징성과 ‘對民安集’이라는 이용가치가 소멸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후 거칠 것이 없어진 일본은 고종을 위협하여 친일내각을 재구성하고, 각종 새로운 형식의 조약을 강요하고 이권 침탈을 자행하였다. 즉, 일본의 입장을 대변할 친일정부를 앞세워야만 농민군 진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조선에서 치러진 대청전쟁에서의 승리는 일본이 조선 지배 정책을 노골화하는 직접적 계기가 된다.

6) 《東學亂記錄》上(국사편찬위원회, 1959), 갑오 9월 9일, 錦營來札(道園), 78쪽.

7) 양인의 대화내용은 伊藤博文 編, 《秘書類纂 朝鮮交涉資料》下(비서류찬간행회, 1936), 263쪽 참조.

이러한 일련의 계기적 과정에서 농민군 재봉기의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이 시기 시대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층은 농민이라는 단일 계층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당시는 농민전쟁이 전개되던 기간으로 현실적으로 농민군만이 대응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 기간 심각한 외부 모순이 피부적으로 감지됨에도 불구하고 양반 유생층들 중 대일전쟁의 문제를 제기하는 자는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오히려 농민군의 활발한 움직임이 이들에게는 이른바 ‘綱常’의 문란, 즉 신조의 위기로 인식되었고, 자신들의 힘의 열세에 대해 개탄만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청일전쟁에 대한 대책수립보다는 ‘東匪’의 진압이라는 데 일차적인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언제든지 기회만 온다면 농민들의 ‘준동’을 막겠다는 자들이 적지 않았다. 결국 이 시기 여러 계층 중 청일전쟁의 결과 나타난 일본군의 침략행위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층은 농민군뿐이었다.

노골적인 식민지화의 요구와 국가적 위기는 농민군의 일차적인 목적인 반봉건사업 추진과정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기능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농민군은 재봉기하여 반침략 의지를 천명하였다. 후일 재봉기의 목적에 관한 일본공사 이노우에의 심문에 전봉준은 답하기를 먼저 奸佞을 갈고,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일본병을 척퇴코자 舉義하기에 이르렀다 한다. 이 시기에 가면 농민전쟁은 반혁명적 세력에 대한 응징의 성격을 갖는 반침략전쟁으로 전화되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반침략전쟁은 반봉건전쟁과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전면적 재봉기 이전인 8월말~9월 초엽 이후부터 농민군의 움직임은 활발해지고 그러한 분위기는 남부의 도처에서 보인다. 경상도의 진주농민군 집강소인 忠慶大都所에서는 9월 2일과 10일에 관내에 방문을 내걸었다. 특히 9월 10일의 재차 작성된 방문에 의하면 옛 兵使의 유임을 바라고 ‘倭人과의 조약에 따라 선출된’ 신임 병사의 부임을 저지코자 진주에서 농민군 대회를 갖고자 하였다 한다. 이 〈巖右(경상우도)의 各邑 各村에 사는 大小民들에게〉라는 방문에 “우리 나라는 옛날부터 小中華라 칭해 왔으며…삼천리는 예의의 나라이고 풍부한 강토이다. 그러나 지금은 國運이 否塞하고 人道가 頽廢하므로 간신들이 禍를 불러들여 倭胡들이 우리 국경을 침범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

여 북쪽 三道는 모두 胡人の 땅이 되었고, 남쪽 五道는 倭賊들이 가득하여…”라 하였다⁸⁾ 농민군 대회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군은 9월 24일 부산으로부터 수비대 1개 중대를 파견하였다.⁹⁾ 또한 전라도 집강소 設包 지역 지방관들의 첩보에 의하면 이곳에서는 10일 전후로 전면적 봉기 준비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에 나타난 사례를 근거로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집강소 설포 지역 농민군의 봉기 준비 상황

지 역	일 시	인 원	내 용
高山縣	9월 10일	300여 명	군기고를 부수고 군기와 물품을 탈취
礪山府	9월 10일		대포와 창으로 군기고에 돌입, 물건을 탈취
全州府	9월 13일		군기고를 파괴하고 銃桶과 環刀를 탈취
威鳳山城	9월 16일	100여 명	군기고의 물품을 모두 탈취
南原府	9월 16일		色吏를 난타하고 官庫의 쌀과 軍米를 탈취
綾州	9월 16일	10여 명	동전 2만량과 백목 30통을 남원대도소로 수송토록 재촉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全州近地 東學黨의 官庫物品 奪取에 관한 報告 ① 〈行全羅道觀察使 兼都巡察使 親軍武南營外使 爲膽報事〉, 開國 503년 9월 15일, 129쪽 및 ② 〈行全羅道觀察使 兼都巡察使 親軍武南營外使 爲膽報事〉, 開國 503년 9월 18일, 130~131쪽.

한편 9월 10일 태인현감의 첩보내용에 의하면 전봉준은 私通에서 “지금 이런 거사는 몹시 커서 비용이 많이드니 公穀과 公錢을 이용해야 하겠으니 군수미 300석과 동전 2천량을 밤사이 金溝 元坪의 大都所로 수송하기 바란다”¹⁰⁾고 하였다 한다. 또한 다른 ‘東匪의 私通文’¹¹⁾에도 “군기고에 있는 화

8)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894년 10월 22일, 南站發甲第152號, 東學黨의 檄文 通報 및 情報通知 要請, 140쪽. 이에 의하면 진주의 농민군들은 성리학적 명분론의 입장 즉, 華夷論的 ‘小中華’ 의식을 견지하면서, 우리 국내에서 서로 싸우는 일본과 청국 모두 오랑캐로 비판하고 있다. 이는 여타 지역의 농민군들의 격문에서는 보기 힘든 매우 독특한 경우이다.

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894년 10월 22일, 南站發甲第152號, 東學黨의 檄文 通報 및 情報通知 要請, 139쪽.

1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894년 9월 18일, 行全羅道觀察使 兼都巡察使 親軍武

약·탄환·창포 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대도시로 수송하기 바란다”로 되어 있다. 이는 김제군수의 牒呈과도 일치한다.

이로 볼 때 전봉준도 9월 초엽부터 제2차 농민전쟁 준비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실제 그 자신도 삼례역에서 800여 명의 부하를 인솔하고 9월 14일 새벽 전주성내로 들어와 두 차례에 걸쳐 군기고에 있는 화포와 탄환·環刀 등의 무기를 마련하여, 다시 삼례로 향하였다. 이 당시 김개남의 남원대도소에서는 光州牧과 高山縣에 傳通을 보내 동전·백미·백목 등을 수송하라는 하였고, 삼례대도소에서도 砲軍이 돌아다니며 群山과 인근 읍에 통문을 돌려 곡물반입을 강요하여 원근 각 읍으로 당시 독촉받지 않은 곳이 없었을 정도였다.¹²⁾

농민군은 대원군 재등장의 희구와 개화와 신정부에 대한 불신, 왕궁점령과 일본군의 국토유린, 농민군 탄압에 대한 응징의 결의를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 전봉준의 견해도 대체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유사하더라도 대원군觀에 대해서는 전봉준은 일반 농민군과는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그것은 1895년 양력 2월 일본공사 이노우에가 대원군과의 관련설 추궁에 대한 전봉준의 답변에서도 명확히 보인다. 일본과 갑오정부는 대원군의 재등장을 두려워하여 ‘농민군 사주설’ 혹은 ‘밀약설’을 거론하여 대원군을 묶어 놓으려고 하였다. 당시 이노우에의 “대원군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심문에 전봉준은 “대원군이 계속 정치를 행하는 것은 威權이 매우 깊은 것이지만 당시는 老耄하여 정치를 집행할 기력이 없다. 원래 우리나라의 정치를 그르치게 한 것도 모두 대원군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인민들은 그에게 설복하지 않는다”¹³⁾라고 답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봉준보다 대원군 측에서 더 적극적인 제후의 손짓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내부대신 朴泳孝의 전봉준 심문 내용중에서도 보인다.

南營外使 爲謄報事, 130쪽.

11) 위와 같음.

12) 《駐韓日本公使館記錄》1, 1894년 9월 18일, 行全羅道觀察使 兼都巡察使 親軍武南營外使 爲謄報事, 131쪽.

13) 《郵便報知新聞》, 명치 28년 3월 7일, 〈東學黨巨魁の審問〉(信夫清三郎, 《增補 日清戰爭》, 1970, 21쪽에서 재인용).

재판소에서 박영효가 대원군과의 연락여부를 문초하자 전봉준은 “대원군 또한 有勢한 자로 어찌 백성을 위하여 同情이 있었으랴”하여 대원군과 농민의 계급적 기반의 차이를 말하면서 전쟁과정에서 일본측에 의해 수시로 거론되던 ‘대원군 지령설’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¹⁴⁾ 전봉준은 공초에서 대원군의 효유문은 보았으나 이는 깊이 믿기 어려움으로 다시 재기를 도모하였고, 그 이유는 “下情이 상달되지 못하고 上澤이 下究되기 어렵기 때문에” 상경하여 民意를 상세히 개진함과 더불어 일본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었다 한다.¹⁵⁾ 전봉준은 이미 7, 8월 사이에 경복궁이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다.¹⁶⁾ 그럼에도 즉각 재봉기를 자제하면서 제2차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장시간 고려를 한 듯하다.

이전부터 일부 국지적 형태를 보이고 있었지만, 전면적인 2차 농민전쟁으로 승화되는 것은 삼례의 대도소를 거점으로 한 전봉준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전봉준이 주장하는 재봉기의 이유는 중앙관료를 깔고, 일본병과 접전하여 이를 척퇴하는 데 있었다.¹⁷⁾ 이듬해 법무대신 徐光範 주재하의 3월 29일(양)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의 판결선고서에 의하면 그 이유를 일본의 조선‘병탄’ 위기에 저항코자 하는, 반침략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7월 하순의 태인 제집으로 귀거하니라. 그후 피고는 일본군대가 대궐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필시 일본인이 아국을 併呑코져 하는 뜻인줄 알고 일본병을 쳐 물리치고 그 거류민을 국외로 구축할 마음으로 다시 起兵을 도모하여 전주 근처 삼례역이 토지광활하고 전라도 요충지로 동년 9월경에 태인을 發程하여 원평을 지나 參禮驛에 이르러 그곳을 기병하는 大都所로 삼고 진안집주, 전주집주... 등 각 지방 인민에게 혹 격문을 돌리고 혹 유세하고 전라우도의 군사를 모으기를 4천여 명이 됨에 각 관아에 들어가 군기를 강탈, 각 지방 富民의 전곡을 징봉...(〈東學農民軍指揮者 全琮準, 孫和中, 崔永昌(卿宣) 判決宣告書 原本〉, 《韓國學報》 39, 1985년 여름호 부록, 189쪽).

14) 吳知泳, 《東學史》(필사 초고본 四, 1924), 3~4쪽.

15) 《東學亂記錄》下, 을미 2월 19일, 〈全琮準五次問目〉.

16) 위와 같음.

17) 《東學亂記錄》下, 〈全琮準 初招 問目〉.

《東京朝日新聞》, 1895년 3월 5일.

정토군 독립 제19대대 사령관 미나미 고지로(南小四郎)이 전봉준 포획 당시의 취조문에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봉준은 경북궁 강점 이래 일본군의 폭주를 ‘병탄’의 구조로 이해하고 있다.¹⁸⁾

농민군 재봉기의 시점은 일본군이 청국 영토로 진입하는 시기와 같다. 의주합락 이후 압록강을 넘어 간 일본군이 봉천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다는 소식을 듣게된 조선인들의 위기의식은 더욱 고조되었으며¹⁹⁾ 따라서 대일관 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되었다.

당시 삼남(경상·전라·충청)은 농민군의 세력범위에 있었으며, 서도(평안·황해)는 청일교전에 통로가 막혀 있었다. 외부대신 金允植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공고하지 않기 때문에 누차 외부의 刺衝을 만나고 내부의 풍파를 일으켜”라 하여 정부의 약체성을 탄식하고 있다.²⁰⁾ 다소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김윤식은 박제순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朝令은 십리 밖에서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朝令不行於十里外)”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²¹⁾ 군국기무처에서 논의하여 작성한 개혁안도 효율적으로 전파되기 힘들지경이었다.²²⁾ 청일전쟁과 농민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전국의 세입상황을 살펴보면 평안·황해 2도는 청일전쟁으로 유린당하고, 전라·충청과 경상도의 절반은 농민군과 관군에 징수당하고, 강원도는 산악이 많고, 함경도의 징세는 변경수비 군수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조선은 재정이 궁핍하게 되었으며, 서울과 경기 일원을 제하면 조세 징수 자체가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당해 년도의 세입은 세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²³⁾ 이렇듯 당시 농민군의 적극적 활동으로 징세는 여의치 않았다. 이는 일본측의 대청전쟁시 작전수행에도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0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일본군은 금주와 대련만을 함락하였다.

18) 《東京朝日新聞》, 1895년 3월 5일.

19) 《大阪朝日新聞》, 1894년 9월 25일, 〈한인의 감정〉.

20) 金正明 編, 《日韓外交資料集成》4-日清戰爭編(東京: 巖南堂書店, 1965), 〈외대 김윤식과의 담화 보고의 건〉, 170쪽.

21) 《東學亂記錄》上, 갑오 8월 11일, 錦營來札(雲養), 85쪽.

22) 菊池謙讓, 《朝鮮近代史》下(鷄鳴社, 1937), 338쪽.

23) 《駐韓日本公使館記錄》5, 1894년 11월 24일, 機密第217號 本132, 내정개혁을 위한 대한정략에 관한 보고, 74쪽.

청국 관내 동북부에서의 청국과의 전투는 일본군을 조선의 농민군 진압에 투입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金州·大連灣 함락으로 청국 관내에서 청국군과 전투를 벌이던 병력을 농민군 토벌에 집중적으로 투입시킬 수 있었다.

이즈음 인천의 이토(伊藤)중좌는 이노우에공사에게 15일에 三路進軍 병력이 용산을 출발, 남하하라는 출동명령을 받았으니 곧 출발하겠다고 보고하였다.²⁴⁾ 한편 이날 공사는 오야마 이와이(大山巖)대장에게 전문을 보내 금주와 대련만 함락을 축하하면서 반면 농민군 ‘만연’에 대한 대책으로 ① 3개 중대를 출동시켜 농민군을 적극적으로 토벌케 할 것과, ② 대원군·이준용과 농민군 연결의 개연성을 차단하라고 하였다.²⁵⁾ 이노우에는 다시 무츠외무대신에게 농민군 토벌방법으로 道를 3분하여 농민군을 포위, 일거에 ‘박멸’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²⁶⁾ 10월 19일 노무라 야스시(野村靖) 내무대신은 훈령으로 청국과 조선의 ‘점령지’²⁷⁾에 일본 경찰관을 파견시키고, 농민군 정벌시 순사 13명을 군대에 배속시켜 서류를 수색하고 수령을 포박하도록 하였다. 곧바로 다음날 무츠는 이노우에에게 전보하여 ‘할 수 있다면 강력하게’ 순사파견을 시행토록 지시하였다.²⁸⁾

한편 미나미가 이끄는 후비보병 독립 제19대대는 10월 2일 일본을 출발하여 9일 인천에 도착하였다. 농민군 토벌 전담부대인 제19대대 파견의 목적은 명분상 조선군을 응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① 조선의 군대를 그들의 지휘하에 두고 일본군법을 적용, 질제에 복종케 하고, ② 남원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라도 농민군의 근거지를 진압, 이들을 소탕하고, ③

24) 《駐韓日本公使館記錄》3, 1894년 11월 10일, 3로로 진군할 일본군 용산출발 명령, 373쪽.

25) 《駐韓日本公使館記錄》3, 1894년 11월 20일, 대원군과 동학당 정황에 관한 보고, 374~375쪽.

26) 《日韓外交資料集成》4, 1894년 11월 16일, 동학당 토벌방법 보고의 건, 207쪽.

27) 내무대신의 훈령은 일본정부의 방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점령지’라면 ‘보호국화’와는 다른 차원으로 일본의 대조선 정책도 이즈음 더욱 강경하게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 《日韓外交資料集成》4, 1894년 11월 12일, 청국 점령지에 경찰관 파견에 관한 건, 207~208쪽.

향후 이 지역 농민군이 강원·함경 및 경상도 방면으로 도주하는 것을 방비함에 있었다.²⁹⁾ 10월 15일 제19대대는 농민군의 본격토벌을 위해 남하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군의 농민군에 대한 입장이 대대적 토벌작전으로 전환될 즈음 조선정부에서는 각도 지방관리와 대소인민에게 농민군 剿滅을 위해 3리로 진군한 일본군에 적극 협력과 주선을 권유하는 취지의 〈勅諭〉 포고문을 발표하였다.³⁰⁾

10월 25일 여순 함락 직전 무렵에 가면 일본군과 관군 연합군은 전국 곳곳에서 농민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농민군 토벌의 핵심은 관군이 아니라 일본군이었다. 일본은 관군을 지휘하였고 관군은 일본군 산하에 배치되어 함께 농민군을 진압하였다. 10월 12일 이노우에공사는 이토병참감에게 농민군 진압차 출동하는 대장들에게 훈령하여 조선군 각 부대를 일본 士官의 명령에 복종케 하고 일본군법을 준수케 하며, 군사의 진퇴도 일본 사관의 지휘 명령에 따르게 하라고 지시하였다.³¹⁾

당시 개화당정부의 농민군 진압 기본방침도 “모름지기 일본 사관과 협의하여 만약 공적이 있으면 즉시 사관에게 양보하여 그 환심을 사는 것이 금일의 요책이다”³²⁾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일본군에 종속되는 것이었다. 무기력한 정부는 농민군 진압이 어렵자 일본군의 무력과 그들의 지휘를 받아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노우에공사는 고종을 알현하고 軍制를 정하는 문제를 개진하였다. 이때 내란 진무를 위해 충분한 병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세입의 일정부분을 군비에 충당할 것과, 士官을 양성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³³⁾ 그러나 그 내용에 대외방비에 관한 항목이 전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海軍無用論을 주장하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

29) 《駐韓日本公使館記錄》5, 1894년 11월 9일, 機密第210號, 동학당 진압을 위한 제19대대 파견에 따른 훈령, 65~68쪽.

30) 《高宗實錄》, 고종 31년 11월 4일조.

31) 《駐韓日本公使館記錄》5, 1894년 11월 9일, 機密第210號, 동학당 진압을 위한 제19대대 파견에 따른 훈령, 68쪽.

32) 《東學亂記錄》下, 李圭泰往復書並墓誌銘, 478~479쪽.

33) 《日韓外交資料集成》4, 1894년 11월 20·21일, 알현의 모양 보고의 건(一)(二), 219~220쪽. 그가 예를 들고 있는 일본사관이 훈련한 교도중대는 이 기간 실제 농민군 토벌에 주력하고 있었다.

다. 조선의 입지조건상 해군은 대외방비에 매우 중요한 군사기구로, 이 한가지 사실로 보아도 일본은 조선 군제의 식민지적 개편을 추구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는 〈大日本軍 第2中隊 大隊長 南小四郎 麾下 左先鋒 李 (12월 8일)〉라는 공문의 제목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나 있다.³⁴⁾ 조선의 군대가 이와 같이 철저하게 일본군에 종속됨에 따라 자신들에게 대항할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 일본은 12월말 농민군의 신속한 진압을 위해 조선군에 탄환 30만 발을 지급하였다.³⁵⁾

한편 여순 함락 기간에 일본은 조선정부와 〈朝日共守同盟〉을 체결하여 청국군을 정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³⁶⁾ 이 동맹안의 표면적 내용은 양국이 동맹하여 청국과 싸우는 데 명분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농민군 토벌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노우에는 11월 1일 외무대신 김윤식에 보내는 전문에 양국이 동맹하여 청국과 싸우고 있는 이러한 ‘비상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을 경내에서 쫓아버리려고 농민군은 누차 군용전신선을 방해하고, 士官을 살해할 뿐만 아니라 병참부를 습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일반 범죄인과 다르기 때문에 ‘수괴’와 관련된 심문시에는 일본영사를 입회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하였다.³⁷⁾

제2차 전쟁 이후 농민군 활동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충청도와 전라도 농민군의 盛勢는 중앙군과 지방 감영병으로서의 ‘以寡敵衆’의 형세였다. 10월 24일 지리산 하단의 하동·곤양·단성·진주 일대는, 진주 討捕使의 비유에 의하면 마치 “밥에 파리가 몰려드는 것과 같다”고 할 정도로 이곳의 농민군의 세력은 강하여 지방관이 일본군대의 주둔을 ‘엎드려’ 원할 정도가 되었다.³⁸⁾

삼남의 농민군 토벌에 주력할 이 시기 수원은 충청도 농민군 초토의 사령

34) 《東學亂記錄》下, 갑오년 12월 25일, 日本士官函牒, 448쪽. 밑줄은 필자가 강조하기 위하여 친 것이다.

35) 《東學亂記錄》下, 갑오년 12월 말일, 日本士官函牒, 427쪽.

36) 《日韓外交資料集成》4, 1894년 11월 24일, 조선국 내정개혁에 관한 보고의 건, 238~240쪽.

37) 《駐韓日本公使館記錄》5, 1894년 11월 27일, 第259號, 동학당 심판에 일본영사 입회 요구, 5쪽.

38) 《各司牒錄》63(국사편찬위원회, 1992), 갑오 10월 24일, 札移電存案, 283쪽.

기지로서 역할하였다. 華營에서는 총리대신에게 전보하여 천안에 분국을 두어 공주·청주·보은 등의 소식을 듣게 하였다.³⁹⁾ 또한 이전 평양전투, 황해해전의 청일전쟁 지역인 서북 지역은 서울에서 지속적으로 李鶴圭·조희일·권형진 등 3인의 선유사를 파견, 일본군대와 같이 북진하면서 일병출병의 뜻을 諭示하였다.⁴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농민군은 일본군과 대적하고 있는 청국군에 대한 호응의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⁴¹⁾ 일본은 10월말 황해도 농민군 토벌명령과 더불어 첩보를 통해 대원군·이준용·민왕후가 농민군에게 보냈다고 알려진 서한 입수에 주력하고 있었다.⁴²⁾ 황해도는 11월 10일에 일본병사가 해주관찰부에 주둔하였다. 이곳에서는 일본군 진입 이후에야 비로소 관측에서 힘을 얻어 농민군 진압작전을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농민군의 저항은 만만치 않게 전개되었다. 황해도 지역은 지방서리들로서 농민군에 참여하는 자도 적지 않았다.⁴³⁾

청일전쟁 말기 일본측은 청국군이 농민군을 소집하여 관군과 더불어 일본군과 개화당을 살륙코자 한다는 여론을 환기시켜 농민군 토벌명분을 계속 축적하고 있었다. 또한 대원군과 그 손자 이준용이 농민군을 이용하여 일본 공사관을 습격할 것이라는 설을 유포하였다.⁴⁴⁾ 따라서 더 적극적인 농민군 토벌책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⁴⁵⁾

그렇지만 평양전투 이후 중국본토의 대청전에서 일본군의 계속되는 승리로 조만간에 청·일간의 ‘和局’이 예견되고 있었다. 이 기간 일본은 농민군의 ‘用力撲滅’을 위해 많은 군인과 무기를 호남지방으로 내려보냈으며, 개화과정 부에서도 ‘비도의 剿滅’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낙관하고 있었다.⁴⁶⁾

39) 《各司謄錄》 63, 갑오 11월 13일, 札移電存案, 286쪽.

40) 《大阪朝日新聞》, 명치 27년 12월 5일.

41) 《韓國民衆運動史資料大系-1894년의 農民戰爭篇》 1(여강출판사, 1994), 黃海道東學黨征討略記, 541~543쪽.

4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1894년 11월 26일, 충청·황해도 동학당 정토상황, 304쪽.

43) 《東學亂記錄》 下, 甲午海營匪擾顛末, 732~733쪽; 黃海道東學黨征討略記, 525~526쪽.

44) 《二六新報》, 1894년 12월 7일.

45) 《二六新報》, 1894년 12월 15일.

46) 《東學亂記錄》 上, 갑오 11월 冬至前 1일, 錦營來札(雲養), 95쪽.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군 지도부는 더욱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일본군에 대한 농민군의 힘의 열세는 더 이상 농민적 지향을 확산시켜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농민군 지도부는 부득이 정부군과 화해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전봉준은 11월 12일 京軍과 營兵 및 이서·상인 등에게 〈告示〉를 발해 조선사람끼리의 골육상전을 지양하고 ‘道는 다르나 斥倭와 斥化는 그 뜻이 같은 것’이라 하면서 ‘同心合力’하여 연합을 통한 대일 항전을 제의하였다.

금년 10월에 개화간당이 왜국과 연결하여 밤을 타고 왕성에 들어가 군부를 뒤흔들고 국권을 제 마음대로 하였다. 더구나 방백수령이 모두 개화와 소속으로 인민을 어루만지고 구휼하지 아니하며 살륙을 좋아하고 생명을 도탄에 빠지게 하였다. 이에 우리 東徒가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소멸하고 개화를 제어하며 조정을 잘 다스리고 사직을 안전하게 보존하려 한다. 매양 의병이 이르는 곳의 병정과 軍校가 의리를 생각지 아니하고 나와서 싸우니 비록 승패는 없으나 인명이 서로 상하니 어찌 불쌍하지 아니하리요. 그 진심은 조선사람끼리 서로 싸우자 하는 바 아니거늘, 이와 같이 골육상전하니 어찌 애달지 아니하리요. (중략) 방금 大軍이 서울을 점령하여 팔방이 흥흥한데 오로지 서로 싸우면 가히 골육상전이다. 한편으로 생각하건대 조선사람끼리라도 道는 다르나 斥倭와 斥化는 그 義가 일반이라. 두어자 글로 의혹을 풀어 알게 하노니 각자 돌려보고 충군우국의 마음이 있어 곧 의리로 돌아오면 상의하여 함께 척왜척화하여 조선이 왜국이 되지 아니하게 하고 同心合力하여 큰 일을 이루게 할지라(《東學亂記錄》下, 〈宣諭榜文并東徒上書所志騰書〉 중 ‘고시 경군여영병이교시민’, 379쪽).

이와 같은 구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힘의 열세는 농민군으로 하여금 계속 수세에 몰리게 하였다. 우세한 화력과 관군의 지원을 받는 일본군의 대대적인 ‘토비’활동으로 농민군은 대부분의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11월 중순 해미·서산·태안 등 충청도 해안지역은 일본군이 ‘義勇兵’을 구사하여 도주하던 농민군 수백 명을 체포하였고,⁴⁷⁾ 전라도 농민군 주력이 활동하던 흥덕과 고창지역에서는 京軍이 民堡軍의 ‘赴義’를 통하여 잔여농민군(‘流賊’)을 잡아 살해하고 있었다.⁴⁸⁾ 일본군은 농민군 토벌 경군을 배속받아 계속해서 대

47) 《大阪毎日新聞》, 1894년 12월 19일, 〈해미 방면의 동도 진정되다〉.

48) 필자미상, 《學義錄》, 갑오 11월 25일, ‘興德官’의 密令, 21~22쪽.

거 남하하였다.⁴⁹⁾ 이러한 기회에 편승하여 과거 농민군과 계급적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지방양반과 유생을 중심으로 한 民堡軍, 儒會軍, 스스로 ‘의병’이라 칭하는 무리 및 祿負商 등 수많은 反農民軍 그룹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도처에서 패잔농민군을 색출하여 살해하고 있었다. 또한 鄉約과 5가작통, 10가작통의 作統制를 실시하여 패잔농민군을 숨겨주거나 이들에 협조하는 기미가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엮어매었다.

청일전쟁 막바지인 1895년 1월초 일본은 온건책으로 이른바 ‘歸順反正’의 농민군 효유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강경책으로 청일전쟁을 치르던 병사 중 일부를 지방관과 연합하여 농민군 초토화에 힘을 집중시켰다.⁵⁰⁾ 이는 농민군의 잔여세력까지 완전히 토벌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달 후가 되면 지방에 출정했던 일본군은 목적을 달성하고 서울로 속속 귀환하고 있었다.⁵¹⁾ 정월말 호남으로 내려갔던 중앙군과 일병은 모두 철수하였다. 이 시기에 가면 대다수 농민군은 궤멸되거나, 각 지역으로 은둔하고 있었다. 잔여세력 초멸에 노력하는 기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해 2월에는 농민군 잔여세력의 재발방지를 위해 각 요충지에 일본군을 주둔시켰다.⁵²⁾ 또한 대청전쟁의 최종 승리를 확인하는 〈시모노세키조약〉 체결 즈음인 3월 일본군 수비대 1만 명을 조선에 배치하였다.⁵³⁾ 이는 농민군의 완전 진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국 이 기간에 이르면 일본과 농민군과의 전쟁은 후자의 완전한 참패로 끝나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군과 민보군 등 반농민군 및 일본군의 패잔농민군에 대한 잔혹한 살상행위만이 뒤따를 뿐이었다.

〈趙宰坤〉

49) 《各司謄錄》 63, 갑오 12월 18일, 札移電存案, 291쪽.

50) 《日韓外交資料集成》 4, 1895년 1월 26일, 츠쿠바함 승선 병사로서 東學黨 討滅協力方의 件, 326쪽.

51) 《各司謄錄》 63, 을미 정월 11일, 札移電存案, 293쪽.

52) 《日韓外交資料集成》 4, 1895년 3월 12일, 동학당 토벌을 위하여 일본군대의 각 요지 分屯에 관한 건, 354~355쪽.

53) 《日韓外交資料集成》 4, 1895년 4월 8일, 일청평화후에 있어서 對韓방침을 정하는 건에 붙인 內申의 건, 361~362쪽.